

관련 자료 소개

- 원문 자료
- 대구사진사 연표 1930년대-1980년대
- 주요 작가 연보
- 참고 자료

최계복, 「사진문화에 대하여」,
『영남일보』, 1946년 7월 25일.



‘올림픽’의 현란한 몸(肉)의 약동도 원자탄의 비상한 파괴력도 우리는 오직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인류생활에 접근해버린 까닭이다. 이에 사진이 가진바 문화적 가치와 그 연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한다.

대체(大体) 사진문화가 동양에 들어온 것은 약 팔십년 전 일본에 수입된 것이 시초이다. 이때의 사진이란 원판습판(原板濕版)이라고 해서 ‘유리’에다가 ‘레말손’ 약을 칠하여 습기 있는 그냥 박히는 것인데 물론 인물 본위(本位)의 저급한 것이었다.

지금과 같이 인화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서양의 각 제작회사의 기술진보에 따라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건판을 사용하게 된 것도 그 뒤의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오십년 전 처음 일인(日人)이 부산 지방을 중심으로 영리 위주의 행상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이때는 인화지를 사용하였다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웃지 못할 ‘난센스’는 사진을 박으면 수명이 짧아 지느니 또는 흔이 빠지느니 해서 그 수가 극히 소수이었던 것이다.

일반 다른 문화방면과 보조를 같이 하게 된 것은 약 이십년 전 일이다. 그 전 약 사십년 전부터 우리들이 직접 연구도 했으나 그것은 크게 발전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약 십년 전 서울 조선일보사 주최로 매년 연중행사의 하나로 예술사진작품전람회가 개최됨에 뜻 있는 젊은이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이용가치를 느끼고 절대적 환영을

받은 것이다. 이때부터 광화예술(光畵藝術)도 이때부터 예술화예술(藝術畵藝術)도 순조로운 성육(成育)을 하게 된 것이다. 입체적 ‘캐치’와 참신한 소재는 이의 생명이므로 착착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의 성장과정에 있어 소조 일체의 침략전쟁으로 모-든 부문이 정지되고 전쟁위주로 되어버린 것이다.

(속 필자 경북사진문화연맹원(續筆者慶北寫真文化聯盟員))

일러두기

- 1 원문은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의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수정하였고 일부 [] 안에 병기했다.
- 2 원문에서 한자로 된 부분은 모두 한글 독음으로 고쳤으며,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처음에 한에서 원래의 한자를 () 안에 병기했다.
- 3 원문이 훼손 되어 알 수 없는 경우 [원문 훼손]이라고 표기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글자 수에 맞게 □로 표기했다.

최계복, 「사진문화에 대하여 (2)」,
『영남일보』, 1946년 7월 26일.



일제의 침략전쟁이 개전(開戰)되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받게 됨으로 사진계는 불건전한 궤도를 걷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사년간은 전연 방치상태에 있었던 것이나 역사의 바퀴는 돌아 민주주의의 승리에 귀(歸)함에 8월 15일을 기하여 우리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본 것이다. 이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새로이 광화예술열(光華藝術熱)이 고등(高騰)되어 경북에서도 사진문화연맹이 탄생되었으며 건국을 앞둔 기념 사진전이 개최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활동분야를 가졌다하나 첫째로, 재료난[에] 따라 사진기도 입수난에 가로놓인 것이다. 앞으로 일반에 보급시키자면 현 미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겸가(兼價)이고 '레버'만 누르면 박을[찍을] 수 있는 종류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진문화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의 사진 열이란 비상한 것이며 문화의 향상에 따라 더한층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진 제작상의 문제는 첫째 '테-마'와 '캐치'에는 명량성과 건강성을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사소한 기술문제보다도 충분히 예술적 가치를 풍기는 작품을 만들 것이며 도덕에 어그러지지 않는 그리고 이론만을 추구하지 않는 실천의 사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이론 중에도 어떠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 새 조선 건설을 앞두고 각 방면으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나 특별 사진향상에는 사계에 뜻 둔 힘 있고 참다운 작가의 출현이 기대되어 마지않는 바이며 끝으로 어디까지든지 연구를 거듭하여 조선 광화예술계를 위하여 큰 지도자가 나오기를 비는 바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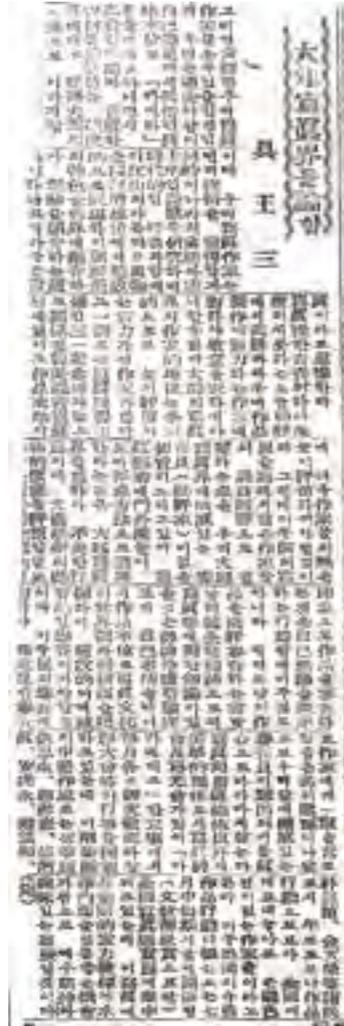
구왕삼, 「대구사진계를 논함」,
『영남일보』, 1947년 5월 25일.



한 사회의 예술의 흥망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니 문화수준이 높은 그 사회의 사람들은 그만큼 발전된 예술을 소유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문화수준이 낮은 사회는 그만큼 퇴화된 예술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그 자체로서 볼 때 독자성을 갖되 그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볼 때 가장 긴밀한 사회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문화 분야의 일부를 차지하고 일반사회사상에 국민예술의 한 '장르'를 획득한 광화예술에 대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사진이 발명된 지 불과 100여 년! 그리고 조선에 수입된 지 불과 40여 년 간! 이같이 짧은 시일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사진계란 일본사진계의 일지부로 도쿄의 연장으로 사진예술의 이론과 작품행동 일질이 무비판한 손에서 수입되어 그야말로 기형적으로 성장 발달해 온 까닭에 아직도 비린내 나는 일본적 화풍이 잔재하고 있는 바다. 기나긴 그 시대의 대구 사진계란 다른 문화부담보담 특수한 입장에서 순전히 일인이 주동이 된 연구단체로 우리들에게는 방첩(防諜)상 관계란 구실로 촬영의 자유까지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일본인 중심으로 된 그 단체란 조선의 자연미, 풍속미를 조선적으로 해석치 아니하고 수박 겉핥기로 그것이나마 일본적인 해석 밑에서 조선의 하층 계단의 추모(醜貌)를 '캐치'하여 자기나라 간행물 혹은 풍경전예다 발표하여 도리어 조선을 욕되게 하고 조선을 곡해하리 마치 그릇된 소개를 해왔던 것이다. 일례를 들면 시정(市井)에서 판매하는 조선풍속 사진엽서 중에서 부녀들의 젓가슴을 그냥 노출 시켜 놓은 사진이라든지 상루단 산촌 지계꾼의 조선을 소개한 따위의 행동은 조선을 미개한으로 비문화적으로 욕되게 소개한 과실한 일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많은 사진기로써 우리 국가에 대한 □□와 휴면문제를 생각지 아니하고 일종 악취미로 조선의 건설면과 문화면은 보지 않고 비문화적인 추모만을 '캐치'함을 볼 때 당하는 우리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속)

구왕삼, 「대구사진계를 논함」,
『영남일보』, 1947년 5월 27일.



그러면 당면한 우리 사진작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와 같이 자기만족에서 저속한 흥미 본위로 '카메라'를 둘러메고 다니면서 고귀한 시간과 귀중한 소재를 낭비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국 대업의 일익(一翼)으로 이바지할 [원본 훼손]이다. 우리 사진작가는 먼저 기량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 나라의 전통과 지사적(志士的)인 시가(詩歌)를 연구하며 시대적인 호흡과 함께 이 강산의 아름다운 풍물을 국민적 감정에서 건설적으로 표현하여 조선미의 특색을 세계에 소개하자. 조선을 소개하는 도□(道□)의 하나로서 가장 큰 [원본 훼손] 사진이라고 사유한다. 사진기 한대, 자재하나 생산되지 못하는 오늘 조선에서 만년(萬難)과 싸우며 작품창작에 노력하는 작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구의 사진계의 작가적 지위는 전국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 실력 가진 작가가 많다. 그 일례로는 사진동맹 주최인 삼일기념전과 앞으로 관계될 한미친선사진전에 있어 그 작품수준이 [원본 훼손]며 더욱 작가들의 열은 높이 평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진(寫展)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의 이구동성으로 갈망하는 점은 우리 대구 사진계에 권위 있는 심사원(비평가)이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사진예술에 문외한들이 모여 채점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대구 사진계를 위하여 불미한 행위이다. 광화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 할 줄 모 [원본 훼손] 인상으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은 자기무식을 표시하는 행위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남의 작품을 비평, 심사하는 자[는] 마땅히 건전한 정신으로써 사진학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은 물론 냉정한 태도로써 자기사정을 떠나서 작품 본위로 사진문화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파악하여 건설적이며 교육적인 심사이러야 할 것이다. 이 두 전(展)의

심사에 대하여 무정견한 심사로 작가에게 일축을 당코 있음은 심히 유감이나 앞으로 우리 앞에 권위있는 심사원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않는다. 사진동맹조직체 이외에 미학적 단체로서 사진연회 및 사광회가 있어 '아카데미'한 입장에서 매월 각각 연구발표와 촬영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양 집단의 중견작가로는 최계복, 홍사영, 조상규, 장병진, 안호영, 정운상, 박삼식, 김천영[김원영의 오기로 보임] 등 제씨로서 연조로 보나 작품행동으로 보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큰 손색됨이 없는 작가들이라고 본다. 이 두 집단의 금후(今後) 작품 행동 목표는 오는 7월 중 구기(旬期) 서울에서 개최될 (문교부장상으로 된) 전국사진감상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전국적 실력 발휘와 수준대면을 엿볼 좋은 기회가 됨으로 매우 기대와 흥미있는 사진(寫展)일 것이다. (완)

구왕삼,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 - 작화의 이론 수립을 위하여」,
『동아일보』, 1955년 2월 17일.



무엇을 어떻게 작화(作畵)할까? 하는 창작방법 문제는 작가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이다. 사진을 제작하는 창작방법에 있어서 '너는 네 법대로 나는 내 법대로' 제작하면 그만이지 않냐고 간단히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진문화가 한국민족의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모름지기 어떠한 작화이론과 방법론이 서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해방 후 십유[십수]년간 우리의 사단은 각자의 경험과 체험 기초로 한 이론 하에 제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제 잔재의 추상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의 사진을 제작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것은 지도이론의 결핍이 아닐 수 없다.

근자에 와서 해외 사진출판물의 입수에 의하여 비로소 세계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사단 일부 작가들 간에 급속도로 문제되고 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작화방법을 즉 '리얼리즘' 문제로 논담도 하고 혹은 작품화하고 있지만 아직 누구하나 지상으로 이론전개를 하지 않고 사담형식에서 그치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제한된 신문지면으로서는 도저히 피

력할 수 없으나 지금 여기서 '리얼리즘' 사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만을 말해보려고 한다.

현실의 진실을 정확히 탐구하는 '리얼리즘'이란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예술분야에서도 일반원칙이다. 18세기 중엽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물철학과 '리얼리즘' 회화론을 낳았다. 이 이론체계와 시대적 배경으로 19세기에 '쿠르베'[Gustave Courbet]가 나타나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그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회화의 세계를 시각적 세계에 한정하여 놓은 통속 '리얼리즘'이 대두하였는데 실로 '쿠르베'의 사실성회화란 모사설에 복사설에 불과한 회화론으로 사진술이 발달되기 전 유화가 사진술의 대응으로 일시에 행세해 본 '리얼리즘'이라고 본다.

문학에서도 수많은 사실주의 작가, 자연주의 작가들은 소설의 어떠한 장면의 행동을 수십 페이지씩 허비하면서 그 진실을 그렸으며 또 추상적이고 감각예술인 음악에서도 모사음악이 성립되었던 것은 <숲속의 대장간>이나 <시계방> 등의 곡은 자연의 음 그대로 음악화 해보려고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회화나 문학이나 음악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 '리얼리즘'의 문제를 논의하고 작품화한 것은 과거 예술사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본론의 주제로 삼는 사진에 대하여서는 종래의 예술 관념이나 개념으로써 논의 할 수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이므로 하여서 새로운 각도에서 사진 본질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하는 동시에 '리얼리즘' 사진문제를 해명함이 순서인가 한다. 사진의 본질은 '메커니즘' 예술이므로 사진술의 발달은 그 전부가 현대 광학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좌우되며 발전하므로 사진예술의 완성에의 길은 과학발달과 함께 영원한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사진예술의 특수성도 광학기구의 발전에 의하여 인간의 시각한계를 새롭게 확대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영원히 새롭고 젊은 예술이다. 즉 사진예술의 본질은 과학성에 기초를 두고 발달하는 철두철미 '메커니즘'의 예술이다. 문학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초월하는 자유분방한 표현방법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심리추구도 할 수 있지만 사진은 언제나 단면에 불과한 불완전한 표현체이므로 제한된 인화지 위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상을 표현하기는 불가능 하다.

객관적인 자연현상과 인간생활을 '리얼'하게 정직히 묘사하는 조형기록이다. 그러나 한국의 작화경향은 사진 본질과는 정반대의 길인 추상주의 작화수법으로 발전하여 생장한 까닭에 사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초적인 인상파회화나 자연주의 방향으로 오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같이 서정의 풍속도에서 수절을 하고 내려오는 한국의 사단이 이제 와서나마 세계적인 시야에서 '리얼리즘'의 방향선으로 지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운동이란 사진 작화 방법의 큰 혁명인 동시 재출발을 의미함이 된다. '리얼리즘' 사진과 과거의 '살롱' 사진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할 때 그 작화의 '모티브'의 취급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 표현형식도 다르다. 즉 1, 자연의 형태미를 정서적 기분으로 인화지 위에다 정착하는 방법론에서 탈각하며 생활과 결부되고 생명이 유동하는 자연을.... 2, 인형과 같은 외형미의 인물사진이 아니라 인간탐구를 위한 진실하고 생동적인 인물사진을.... 3, 피상적인 현실복사가 아니라 역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묘사하되 동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의 밀착인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리얼리즘'의 사진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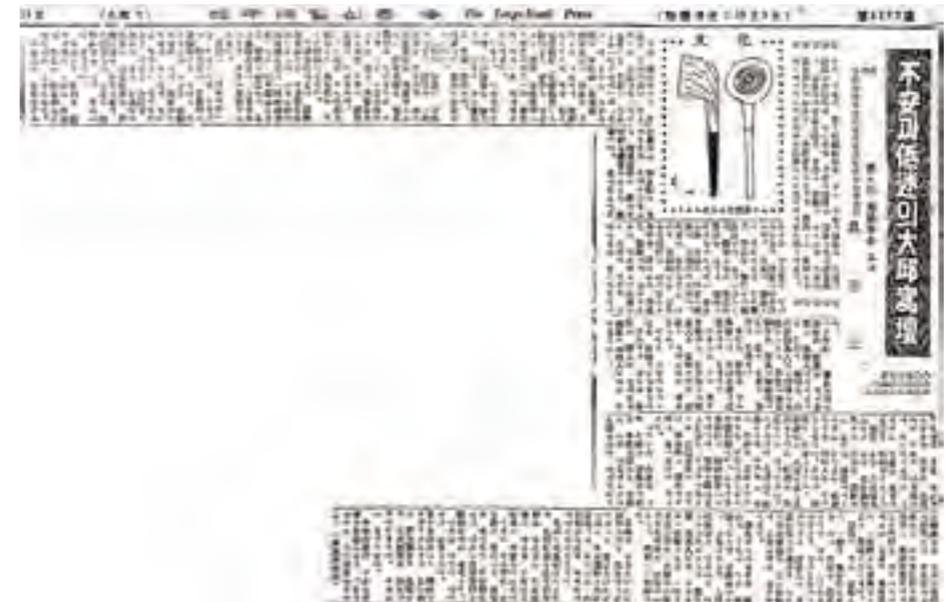
즉 자연, 인물, 현실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로 새로운 풍경화라 해도 화면 구성상에 어떤 특별한 각도를 노리는 정도라면 과거 작품에서 보다 별로 새롭지 못한 유사한 화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화면처리 방법이나 구성형식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인간과 자연이 융합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가진 생산을 말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련성을 표현한 것이라야 할 것이며 둘째로 인물사진은 해(該) 인물의 생활감정과 시대 사회상을 표출하는 동시에 그 인물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현실감의 특징과 성격을 높은 지성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일견 알 수 있도록 표현한 사진이라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리얼리즘'에 대하여 고찰할 때 사회문제를 제외 할 수가 없

으니 '리얼리즘' 예술이란 그 자체가 사회성을 띤 방향으로 작가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리얼리즘'은 역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기록이므로 우리의 생활의 시간, 공간적인 현실을 응시하여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리얼리즘'의 관점이라고 본다.

이상의 작화방법 문제는 사진이 가진 바 역사의 기록물로 조형언어로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리얼리즘'의 창작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흔히들 일본서 오는 『카메라』지의 평론이나 작품 중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이 간혹 있는데 우리가 외국의 이론을 무비판적·직역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미이다. '리얼리즘'이란 결국 표현형식이 사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은 어디까지나 표현형식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에서 대상을 표하는 것이니 '리얼리즘'의 사진은 주관적인 의식능력의 '이미지네이션(상상)'에서 제작됨이 아니고 외적 자연세계 중에서 미와 진실이 내재하고 있는 현실을 표현형식으로 작품이 구성되는 것이다.

과거 서정의 풍경도에는 먼지와 이끼가 낀지 이미 오래이다. 사진에서 제아무리 낭만을 추구해봤자 세월은 구출할 아무런 길이 없으니 '이수일과 심순애 시절'의 사진은 퇴색된 지 이미 오래이다. 새로운 세대의 탐구를 부정하고 초연할 수 있다면 그는 20세기적인 '돈키호테'의 희극이 될 것이다. (필자·광화회장)

구왕삼, 「불안과 저미의 대구사단 - 제10회 사협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8년 11월 11일.



제공: 매일신문사.

이번 서울서 《제10회 사협전》을 보고 서울의 사진과 대구의 사진을 비교하여 바라볼 때 서울의 사단은 사진의 문화적 의식이 고도하여 작품 자체가 의욕과 정열이 보이는데 대구 작품 자체는 작년보다 일부 전진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따질 때 어딘지 불안하고 저급하고 타성에 빠져있는 감이 들었다.

이번 《사협전》에서 출품한 대구 작가의 작품 중에는 김석단 작 <플랫폼>은 문제의 작품으로 '아이디어'와 '센스'가 좋았고 그 외 김진욱, 신현국, 최동식, 권태윤 등의 작품은 역작으로 서울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더욱 신인 최동식 작 <시장풍경>은 쾌작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추천 김태한 작 <내 얼굴 어때!>는 심사의 '미쓰'로 푸대접을 받고 말았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대구 사진은 가공부터 촌태가 나고 소재가 천편일률적이다. 작가들의 여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 사진이 부진하고 있는 원인을 일부 작가가 말하기를 작금(昨今) 사진자재가 고가(高價)함으로 또는 경제문제로 사진제작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이 점에 대하여는 약간 동정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 원인이 아닌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작가를 막론하고 예술가는 가난한 족속인 것이다. 예술창작에 있어 경제적 빈곤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즉 대구 사진작가의 '정신적 빈곤'으로 인해 패기가 없고 정열이 결지[결핍]하여 옳은 예술작품이 싹틀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자기의 '매너리즘'을 박차고 나올 눈물 나는 노력 없이 객관적인 제 조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같은 유치한 말이 어찌 예술하는 사람의 입으로써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겠는가? 이 말은 자기를 욕하는 말에 불과하다. 대구의 사진작가는 경제문제를 말하기 전에 자기노력의 부족과 정열 결핍을 먼저 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적인 면에서 볼 때 대구의 작가의 작품은 수량적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본다. 역량 있는 작가일수록 생산되는 작품 수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으로 사진세계는 수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이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질을 얻게 되는 것이 사진의 특유성이다. 대구의 사진인이 쥐꼬리만 한 한 두 편의 작품을 제작하여 《사협전》에나 보내는 것으로서 능사로 알고 심지어 구작을 보내서 사단의 빈축을 사는 따위의 비양심적 행위는 작가의 파산에 불과하다고 본다. 작가가 신작을 들고 나와서 전국적으로 대결을 할 각오는 하지 않고 우물쭈물 한가하고 안이한 태도에서 놀고먹고 사는 앓은뱅이 작가들이 대구에 수도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서울 작가는 사진에 대한 적극적 태도로 벌써 착실한 예술인이 되어있지만 대구의 사단은 사이버사진인들이 사단을 지배하고 있는 이질적 사진도시로 사진에 적극성이 없고 양의 생산도 과작(寡作)에 불과하다. 다작은 걸작을 낳는 온실이니 양적생산에 치중하여야 될 줄 안다.

다음으로 나는 종종 문학하는 친구들에게 사진인은 예술에 대한 교양이 적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이번도 서울에 가서 이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 대구에서 올라온 모 씨는 상인은 될지언정 사진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였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말이 나를 위하여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고 솔직한 직언에 자기를 비판하여 보았다. 사실 오늘 대구 사진인이 모든 문화예술계와의 교섭을 차단하고 깊숙한 밀실에서 도사리고 앉아있는 족속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여서 교양이 부족한 것이다.

예술가도 인간인 이상 생활을 등지고 경제와 외면하라고 하지 않는다. 어데까지나 생활감이 □성하여야 마음 놓고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상식문제이다. 그렇지만 예술가의 정신세계는 어디까지나 예술을 위한 지상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예술가란 권위와 긍지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비록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시장에 나가 장돌뱅이의 생활을 한대손 치더라도 그 정신만은 언제나 학문의 세계에서 문화사와 거래하고

모든 문화계와 공존하는 예술광장에서 새로운 호흡을 같이하여야 비로소 자신이 예술계의 일가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바다. 교양이 적은 사진인이 일체의 예술계와 담을 쌓고 교류를 거부한다면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사진인의 자살행위에 불과하며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속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사진하는 사람 중엔 《국전》을 안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음악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인간가족전》을 안보아도 다 안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사진인이란 무엇을 하는 족속이긴데 일체의 문화행사와 외면하고 현대문화 호흡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단순한 장돌뱅이라면 논외이지만 사단에서 감투를 쓰고 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 문화운동의 공동광장으로 뛰어나와 공동권익을 위해 씩씩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진단체의 감투를 사리사욕을 위한 이용물로 삼고 있는 대구 사단은 새로운 수술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제는 묵은 역사의 늙고 병든 노병들은 사단을 차지하여 혁신관념에서 새로운 사진운동을 전개하여야 될 줄 안다.

이제는 어중이떠중이가 필요가 없다. 단 십 명 내외라도 순수한 알맹이가 모여서 양심적인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대구 사단을 구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중견작가의 새로운 자각을 촉진[촉구]하면서 서울서 돌아온 나의 소감을 적어둔다.

(사진비평가)

김태한, 「옳은 사진작품 평을 위하여 - 구왕삼 씨의 「불안과 저미의 대구 사단」을 읽고, 『대구일보』, 1958년 11월 14일.

사진을 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진을 아껴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그것을 알면서 무자비하게 짓밟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작가가 한 작품을 만들기 까지는 저마다 심혈을 경주(傾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작이니 태작(駭作)이니 등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작가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 까닭이나 근거 없이 자기 말이 절대적인 듯이 방언(放言)하는 것은 평자의 무식을 지상으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역작이니 태작이니 따위의 평은 국민교(國民校) 아동들이라도 충분히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의 평을 하려면 한 작품에 대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에서 캐치[catch]하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도의 정상화, 내용의 충실, 톤의 조화, 작품에 흐르는 사상 누구나 보아도 동감 일 수 있는 점을 밝혀 그의 장점과 단점을 평하여 그 작가가 분발하고 작화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평자의 상식이고 정직일 것입니다. 얕은 지식으로서 세인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근거 없는 방언을 연발하는 비평인은 오래토록 독자의 신용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진은 머리에서 우러나는 사진이라야 되고 한 장의 사진을 만들려면 이미 머리에서 수백 번 셔터를 누르고 난 뒤여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 다만 셔터 찬스로서 얻어진 사진만이 작품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질적인 사진이라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공보원에서 전시된 미국 국제 사진전과 미국 모 대학 미술전과 동시에 전시된 사진을 볼 때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생명이 있고 미가 있고 표현하려는 의식이 뚜렷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진인이 '리얼리즘'을 주창하고 있지만 그때 같이 전시된 한국의 7점의 '리얼리즘' 사진을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먼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한 작품을 예로 든다면 <선(線)과 소나기>라는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케케묵은 '살롱'적 사진이라 할 것이지만 거기에는 완전하게 주관이 되는 선의 묘미와 아울러 소나기가 금방 한 방울 두 방울 쏟아져 오는 기분이 나도록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 세계조류에 휩쓸려야하고 그 조류가 현재 일부 사진인들이 견고한 그러한 '리얼리즘'적인 조류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이 뚜렷한 사진이어야 하고 만인이 보아서 함께 도취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어]야 할 것입니다.

평자는 대구의 사진가공이 재태기[?]라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었고 소재 역시 천태만태(天態萬態)이지 일률적은 아닙니다. 또 서울작가와 대구작가 운운하지만 서울작가는 사진으로서 생계를 하는 사람이고 대구작가는 사진이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가를 이용하여 시간 있는 대로 정열을 사진에 쏟아 우수한 작품을 생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해서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생활의 전부 아니기에 그 사람들과 같은 활동을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평자는 사진을 평하는 것이 상식이지 심사원을 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추천에 '미스'가 발견될 때에는 그 '미스' 된 항목을 들어 설명하여야 될 것이고 그것을 듣고저 합니다. 다만 '미스'라고 발표하므로써 평자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진지하게 평하므로써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구 작가의 경제적 운운은 평자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작가에 정열과 의욕이 있다면 그것은 제2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것을 아주 토픽 뉴-스처럼 쳐드는 것이 옳은 평자의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작품을 양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첫째 작가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일지라도 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없으면 그 작품은 실패작일 것입니다. 이것 역시 큰 자랑처럼 발표하는 것도 옳은 일이 못됩니다. 또 대구 사진인은 밀실에 깊숙히 파묻혀 있던 족속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계적 수준에 육박하려고 외국과 연락하고 그의 의견을 듣고 심지어 독일 서독·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지까지 이미 진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자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제일 많이 보고 많이 교제하고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진 10회전만 하더라도 대구의 사진이 다만 몇몇 작가의 작품만이 평의 대상이 되고 그 외 작가의 작품은 작품의 가치가 없는지 재삼 묻고자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평의 대상이 된 작품은 평자의 얕은 지식으로서 평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작품은 그의 지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평자는 어디까지나 공평하여야 하고 작가의 도움이 되고 작가의 반려자가 되어야 옳은 평자지 작가의 의욕을 꺾고 무력무력 자라는 신인의 앞길을 막고 사단을 분열시키는 평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작가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얕은 지식의 평을 계속한다면 그때마다 정당한 평을 계속 발표할 것을 재삼 기억하게 하여두는 바입니다.

(교사)

박영달, '대구사단에 제언함(상) - 작가와 비평가의 사용성을 밝히며', 『대구일보』, 1959년 1월 6일.

지난해의 경북사단 총평이 대매[대구매일신문]에는 구왕삼 씨에 의해서 대일[대구일보]에는 안월산 씨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구왕삼 씨는 정신호수의 고갈을 지적해서 노력에 의한 자기개혁을 역설하였고 안월산 씨는 대구사진인의 사기왕성함을 예찬하였다. 그러나 그분들은 상극된 입장에서 글을 썼으면서도 대구사단이 새 길을 개척치 못하였다는 점에는 일치(一致)적인 지적을 내렸다.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 사진인들의 현상타개를 구왕삼 씨는 사진인 자신의 노력에 호소했고 안월산 씨는 연구단체의 과제로써 돌렸다. 두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표명한 발언이었다. 한국의 사진의 후진성을 하루 빨리 국제적인 수준에 끌어 올리고자 순수한 이론무장하에 지성적인 채찍을 사정없이 갈기면서 자기의 평론을 하나의 창작으로 높이고자 하는 구왕삼 씨 사진인 육성이란 대의명분 하에 그의 평필을 언제나 일반 사진인의 심리-대외적으로서는 작가의 칭호를 받고 싶고 대내적인 평을 연구생 취급을 받으려는 심리에 가장 비위를 잘 맞추어 두둔하고 구슬러 넘기는 훈도식의 안월산 씨 사진의 새 방향의 추구는 순전히 연구단체의 역(域)을 벗어난 개인의 역량문제에 속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럴싸하게 연구단체에서 성취시킬 수 있는 것 같이 엄버무려[얼버무려] 넘기는 노련함 그러나 안월산 씨가 김태한 씨를 여기에 들고 나온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아도 구토증 나는 이야기이다.

본래 지상을 통한 논쟁이란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규명하거나 그 부문을 진일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성실성과 윤리 밑에서 집필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작품을 나쁘게 말했다고 당사자가 붓을 들고 욕지거리와 모욕적 언사로 행패를 부리는 데는 아무런 설득력도 느낄 수 없고 이러한 불성실까지 안 씨가 두둔한다면 씨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문하생을 거느린 씨의 인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을 읽을 때 나는 지나간 날 C 씨가 K 씨를 시켜 구왕삼 씨와 논쟁하던 것이 되[다시] 생각키어[떠올라서] 심히 불쾌하였다. 물론 존경하는 안월산 씨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는 김태한 씨의 글에 대해선 그분이 지금 사진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니 삼년 뒤에 다시 자기 글을 내어 읽으면 스스로 느껴질 점이 있을 것을 믿고 이 이상 그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

육년 전 내가 처음으로 사진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부터 구왕삼 씨와 대구사우회 영도자(領導者)들과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사이였다. 그 때(時) 구왕삼 씨는 광화회의 회장이었고 C 씨는 경북사단의 거물로 사우회의 지도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의 사진단체를 영도했으며 모든 콘테스트의 주최자요 심사장이었다. 이 두 분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구왕삼 씨의 리얼리즘론에 대해서 C 씨는 K 씨를 시켜 이는 하나의 유행적인 풍조요 사진에는 아무런 이즘(ism)도 없고 그저 보고 좋은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광화회를 물러 나온 구왕삼 씨는 이러한 설(說)과 C 씨가 닦아 놓은 살롱적인 아성을 깨뜨리고자 붓끝을 날카롭게 하였다. 유희적이고 회화추종적인 사진을 탈피하고 사진의 본질적인 리얼리티를 추궁하라고 사정없이 내려 갈겼다. 고답적이고 냉혹한 필치였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숙덕공론이 되고 이것은 욕설과 비방으로 발전해서 일시는 C 씨의 젊은 문하생에 의해서 폭력설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구왕삼 씨는 이론의 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의 필봉을 꺾지 않았다.

사진도 예술의 대열에 참여하려면 예술사진이 아닌 사진예술의 길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였다. 씨에게는 아무런 타협도 없었다. 고립된 고립한 뒷뿌리[?]였다. 이러한 기운 속에서 경북사연(慶北寫聯)이

탄생했다. 경북의 모든 사진인이 그 산하에 포섭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동안 대구의 몇몇 사진인의 작화경향이 곱은 것에서 이탈해서 생활 속에서 리얼리티를 찾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의 카메라 잡지가 들어오므로 자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구왕삼 씨의 논조를 따르는 코-스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도 그 대부분이 살롱과 리얼의 절충식이었기 때문에 구왕삼 씨는 여기에는 사정없는 채찍을 내리갈것다. 이 붓끝의 매를 맞는 사진인들은 내심 반발하고 격분해서 감정의 담장을 더욱 견고히 싸고 비방과 욕설을 유포시켰다.

1957년도의 사협전을 보고 C 씨 없는 C 씨의 문학생들 몇 분과 사협에 속하는 사진인들이 비로서 대구의 작품이 서울 작품에 뒤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작품내용이 곱은 것의 추궁이 아니고 완전히 생활을 통한 진실생활의 리얼리티를 추구한 작품됨을 보고 구왕삼 씨의 특론(特論)이 결실하였음을 그리고 씨의 특론이 사진의 역사적인 흐름 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억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잡음을 일소하고 허심탄회 어디까지나 사진으로써 자기주장을 관철해 보겠다는 사람만이 모여서 재출발해 보겠다고 조직된 것이 보도사진가협회(報道寫眞家協會)였다.

구왕삼 씨도 그 후 자연주의적인 리얼리즘론을 버리고 문학과 회화가 내면적인 표현으로 들어간 현대적인 표현으로 흐름을 받아들여 현대사진을 제창하게 되었다. 심리적인 묘사와 작품내용이 완전한 자기 표현력을 가질 것을 역설하고 몬도리안[Piet Mondrian]의 모든 색채의 기본색의 환원을 흑백의 톤으로 이끌어 넣어 물질원색론(物質原色論)을 부르짖게 되었다.

리얼 포-토를 주류로 하고 추상 주관주의(主觀主義) 사진을 방계(傍系)로 하는 씨의 이론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현대회화가 사진 추상 표현 초현실주의의 네 흐름 속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조형정신을 사진적인 면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씨는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금년 봄 동아(東亞)지에 발표하였다. 그 후 씨의 작품 평은 이 주관 밑에서 시도되었다.

박영달, 「대구 사단에 제언함(하)」,

『대구일보』, 1959년 1월 7일.

그러나 대구의 사진인은 씨의 이러한 평론가적인 자기 개척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수의 사진인이 사진의 현대적인 형식이 매카니즘에 의한 선명묘사 렌즈의 특성에 의한 과장감(誇張感) 밀접감(密接感)의 표현 조형미의 추궁[추구] 현대 회화적인(추상, 환상, 판화 등) 표현에서 이룩되고 있음을 이해는 하였으나 이 그릇에 담겨질 내용 즉 자체교양과 예술적인 감수성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정신적인 양식은 지나간 사진의 유산에선 섭취할 수 없고 오로지 현대 회화와 현대 음악의 전위적인 연구에서만 이룩할 수 있는데 사진작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자체 교양을 거부함으로 씨는 안타까이 매질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인이 사진작가가 되고 나라[아]가서는 부레송 [Henri Cartier-Bresson]과 같은 창조적인 사진작가가 되기 위하여는 어느 자매 예술가 보담도 예술 전반에 대한 그 중에도 현대 회화에 대하여는 조예가 깊고 또 인간성이 풍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길에 눈을 딱 감고 무슨 사진작가가 되겠다고 애쓰느냐고 목에 피를 돋우는 것이 구왕삼 씨다. 그러나 일반 사진인은 이런 소리를 시끄러워한다. 그런 어려운 이론을 배우려면 아예 사진 길에 들어오지도 않겠다. 사진은 대중예술로 그저 취미를 엔조이(enjoy)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다로운 이론으로 우리를 매질하고 어지럽게 하지 말라. 사진은 이론이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면 된다는 이러한 반발된 분위기가 가장 요약해서 표현 된 것이 김태한 씨 — 다시 들추어서 미안하지만 — 구왕삼 씨에게 지상(紙上)을 통하여 이론의 붓을 사진 부문에서 띠고 다른 방면으로 물러가라는 오만무례한 보수적인 발언이 되고 안월산 씨의 총평의 끝의 김태한 씨의 출현을 예찬한 구절이 될 것이다. 대구 사단은 이와 같이 고고한 구왕삼 씨를 논의 가시로 하고 욕하고 침 뱉고 차고 때리며 해를 넘겼다. 어쨌든 대구사단은 이 두 모순된 대립된 인자(因子)가 상호 발전하므로 해서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생리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 공기의 해소가 좋은 지 나쁜 지는 올해의 숙제이지만 사진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용감히 버리는 예술인다운 분위기가 대구 사단에 깃들도록 서로 노력하고자 제언하는 바이다.

(사진작가)

강신울, 「혼잡해버린 비평정신 - 김태한 씨의 「결허된 인간성」을 읽고,
『매일신문』, 1960년 11월 2일.



제공: 매일신문사.

사진예술은 발견의 예술이다. 어떠한 좋은 발상을 가졌을지라도 현실의 대상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구체화할 수 없다. 그중에도 '포-트레이트'는 미지 발견의 연속이다. 많은 사진 분야 중에 가장 변화가 많고 가장 흥미가 있고 또 가장 어려운 분야가 '포-트레이트'일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적인 용모는 물론이고 주위의 정황과 복장의 변화 '포-즈'의 미추(美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 천차만별의 무궁한 변화를 내포한 다양한 소재이다.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표현방식도 다기다양(多岐多様)할 것이다. '스냅' 수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의 일순(一瞬)을 정착하고 연출방법으로 고정된 영원에 표정을 실감묘사 발견하고 선택하고 강조하고 생략하고 암시하며 소재 자체가 다의성을 띤 것처럼 표현방식도 자유분방하여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리얼리즘'의 전성시대에는 '스냅' 수법으로 감정의 일순을 포착하여 개별적인 '캐릭터'-만을 추구하여 왔지만 오늘날 '포-트레이트'는 거기서 한걸음 전진하여 좁은 개성의 한계 속에 국한하려하지 않고 개성을 확대 초월하여 초개성적인 보편성을 내포한 인간의 영원성과

본질상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편협한 개인적인 것을 떠나 넓게 깊게 인간적인 전체를 한 초상에서 강렬하게 전달할 것인가가 오늘의 '포-트레이트'의 과제 일 것이다.

전반 김태한 씨가 쓴 사진평 개요가 외국잡지에 실린 모 씨의 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모 씨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주문에 의한 영업사진이지 사진가가 창작을 위한 유상사진[초상사진]은 아닐 것이다. 한 번 더 정독하시기 바란다.

'스튜디오'를 가진 사진가는 창작방면에 나서고 싶으면 사진관을 그만두어야 한다느니 작가행세를 하는 것은 양심조차 없는 무식한 사진쟁이라는 것은 이정강 씨 한 개인에게만 모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직업사진가를 모욕한 처사일 것이다. 아무리 영업사진가가 무식하기로서 고객의 주문에 의한 영업사진을 창작이라고 대중 앞에 내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김 씨는 영업사진과 창작품을 혼돈하고 있다. 그리고 알맞은 조명, 적당한 '앵글', '모델'의 연출이 나쁠 것이 없다. '스냅'만이 예술이 아니다. 예술가는 예술의 요소를 구사하고 창조활동에 인용하여 자기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게끔 매개물을 미적으로 구성하는 자일 것이다. 예술은 표현 기술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술의 수련결과로서 이루어진 제품을 예술성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채광, 어떠한 도구를 써도 무방할 것이다. 요는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전체를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연출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완전 연출이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스냅' 수법은 어느 정도의 우연성이 개입하여 요행을 바랄 수 있지만 완전 연출은 일호(一毫)도 우연성의 개입을 불허하므로 작가의 역량이 가장 엄격하게 작품상에 표현된다. 그러므로 작가의 지성이 작품의 양부미추(良否美醜)를 가장 정확하게 결정짓는다. 문제는 작품의 성과가 그 작품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지, 제작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확하게 결정짓는다. 세계 사단의 저명한 초상사진가가 거의 완전 연출 혹은 '세미' 연출 수법을 쓰고 있는 세계의 미녀 작가 '필립 할스만'[Philippe Halsman] 가면과 운명의 '데레즈 루 푸라'[Thérese Le Prat] 세미 연출가로서 사진적인 에세이의 대가 '유진 스미스'[Eugene Smith]가 있는가하면 '포-토 스토리'에 저명작가 '데니스 스토크'[Dennis Stock]가 있다. 사진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스냅'이나 연출수법이거나 트는 창작을 위한 작가의 표현수법에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문제는 작품의 성과가 그 작품에 우열을 결정 짓는 것이지 제작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술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공평구사하고 지도 계몽성을 평론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긴요한 것이란[것인가란] 재언(再言)을 불요한 것이다. 참된 비평이 우리 사단을 구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시에 왜곡된 사이버 평필(平筆)이 우리 사단의 전진을 조해하고[저해하고] 창작 의욕을 말살하는 무서운 독소가 될 것이다. 비평정신의 확립이 되지 않는 곳에 정당한 평론이 나올 수 없고, 정당한 평론이 없는 곳이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사진평이나 쓴다는 사람들이 외국잡지 몇 페이지를 들추어 읽고 그것을 자기사상인양 뽐내면서 함부로 남의 작품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대가연(大家然)하는 것은 가장 구역질나는 일이다. 도대체 자기 주견(主見)도 없는 사람이 비평정신의 확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혈정(血晶)인 귀중한 작품을 얕잡아 볼 것인가. 평론가란 예술의 제반 상식을 갖추고 이론에 정통하여 특히 해당 분야에서는 일가언(一家言)의 주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사단에서 가장 큰 폐단은 평필을 잡는다는 자가 남의 작품을 가혹하게 평하는 것으로 평필의 위신이 선다는 오인된 사고인데 이러한 일이 우리 사단의 앞날을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될까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김 씨에게 또 묻노니 영업사진가 아니 김 씨 말대로 사진사라고 하여 왜 작가행동을 할 수 없을까?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작가 행동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제한을 받은 예가 있는가? 예술은 소질 여하로 어느 분야를 택하든지 또는 겸하든지 무방할 것이다. 화가 담징(曇徵)은 미술가이면서 오경에 정통하여 일본에 건너가 한학(漢學)과 채화(彩畵)를 전하였고, '르

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미술가 '다빈치'는 조각, 건축, 수학, 해부학, 음악 등 각 분야에 깊은 조예를 가졌다고 하지 않은가? 또 "작가행동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작가명칭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마구 뒤섞어 놓은 혼합정신이다. 작가의 명칭은 그 행동에 의하여 불러 질 것이지 행동이 없는 작가는 명칭조차 붙이지 못할 것이다. 화가가 조각에 정통하여 조각하는 행동을 하면 조각가로 명칭하여 무방할 것이요. 정치하는 사람이 문학에 뛰어난 재질이 있어서 위대한 글을 썼다면, 문학가로 명칭하여 아무 이의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에 언론자유 권리를 막을 수 없듯 예술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전문과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김 씨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간판업자가 기술과 이론과 기교가 모자라서 화가 행세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우리 사단에도 이러한 양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양심조차 없으면 무식한 사진쟁이 소리를 못사람에게 듣게 되고 예술의 한 분야로 구축한 선배들에게 크나큰 모욕을 주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사단을 무시한 교만한 언사인가! 간판업자는 숙명적으로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비록 간판을 그려서 생활의 방편을 세우는 간판업자라 할지라도 화가의 소질을 갖추고 기술과 이론과 기교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술가 대열에 참가하고 행세하여 조금도 양심의 구애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요는 질로서 따질 것이지 외형에서 오는 행세에 대하여서는 논의될 성질이 아니다.

간판업자란 라벨로 인하여 앞날의 승진을 단념한다는 것은 겸손도 아니요 김 씨가 말한 양심도 아니며 이는 일종의 비굴성에서 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한국에 모든 예술분야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창작에만 전념하는 예술가가 몇이나 될까 통계적으로 세밀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필자의 추측으로는 불행히도 거의 유식 예술가로서 시정 직업에서 생활의 보장을 얻고 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리지 않는 것이다. 세계 저명 작가 중 6·70%가 영업사진가 출신으로서 현재도 '스튜디오'를 가진 자가 많다. 영업사진가는 돈을 벌기위한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영업은 작가 생활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테크닉' 면에도 수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서 영업사진가들은 그 직무에 충실히 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창작생활에 참여를 역설하는 바이다.

예술은 결코 안이한 것이 아니다. 예술의 등용문은 가장 엄격하다. 이 엄격한 예술을 비판하는 비판가의 위치는 작가와 대중의 중간에 서는 것이며, 대중에 대하여서는 감상과 이해를 더 잘하게 하며 그 작품이 정말 무엇인가 보게 하고 느끼게 하며 작가에게는 계몽하고 지도하고 편달하는 가장 엄숙한 위치일 것이다. 담박한 식견으로 인한 편견과 어떤 세력분포를 위한 정실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작품 본위의 사단 발전을 위한 건전한 평필이어야 할 것이다.

(대한사진가연합회 마산지부장)

김재수, 「사진의 보편화와 예술성 - B 씨의 「뺨 맞아야 할 기성」을 보고」, 『영남일보』, 1963년 7월 13일.



B 씨의 「뽀뽀 맞아야 할 기성」이란 사단 수상(隨想)은 매우 흥미를 갖고 읽었다. 흔해빠진 국제전 당선 작가가 우후죽순처럼 급조되어 '인플레' 기미(氣味)인 향토사단의 일면을 찌른 점에서 씨와 동감이나 씨의 글이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필자의 소신을 말하려한다.

첫째 사진이 오늘날 생활과 밀접해져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라고 전제하고 J 직장서클전이 사진의 보편화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금일의 카메라 공업을 개관하건데 노출의 자동화에서 거리와 노출의 완전자동화로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비약하여 영상을 정착시키는데 조금도 인간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 보편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진작업에 있어 수단 방법에 불과한 메커니즘의 보편화가 즉 예술 작업의 보편화로 착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식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씨의 논법을 빌린다면 마치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의 출현이 문학의 보편화에 기여하였다는 식이니 말이다. 문제는 타이프라이터 출현이 아니라 '키'를 두드리는 작가의 두뇌가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당면한 과제로서 '카메라'의 EE화가 사진작가들에 얼마마한 '플러스'를 가져왔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사진작가 수단으로서 적정노출은 이미 문제시 하지 않을뿐더러 의식적으로 '언더' 혹은 '오버' 노출을 적극 시도할 뿐 아니라 1000분의 1초라는 육안으로 예측할 수도 없는 영상화를 실험하고 있으며 물체의 유동감을 의식적으로 10분의 1초라는 상식 외의 '셔터' 속도를 선택하는 형편이다. 획일적으로 6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라는 EE '카메라'의 '셔터' 속도로 우리 사진인들의 다양한 표현의욕을 충족시키는데 불만을 갖는 것이 작금 실정인 것이다.

이상은 사진표현의 '메커니즘'을 말한 것 뿐이고 사진작화의 보다 핵심과제인 작가의 '이미지'와 상상마저 '오토메이션'[automation]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보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현대의 위기의식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다큐멘탈'[documental]하게 표현할 것인지 진통 고민하는 것이 사진작가들의 당면과제이다. 메커니즘의 자동화를 예술사진작업의 안이화(安易化)로 착각한다는 것은 큰 오류라 지적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진기능의 확대가 사진가치(특히 예술사진)의 보편화로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행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J 직장서클전을 씨의 말처럼 「사진기능의 보편화에 기여한 사진전」이란 부제를 단다면 문제는 다르겠으나 거론할 형편도 못되는 초보적인 습작전을 두둔하는 나머지 기성의 돼먹지 않은 권위의식에 구역질 운운하는 자학적인 폭언을 휘두르는 것은 향토사단의 선의의 기성작가들까지 덤으로 피해를 끼치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그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론과 그의 작품이 일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B 씨는 작품론과 사진비평을 혼동하고 있다. 씨의 말대로라면 위대한 작가만이 훌륭한 비평을 할 수 있다는 논법이 성립된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으로서 비평을 지도이념으로 착각하는데서 연유된다고 보는 것이다. 무릇 비평이란 비평가 자기류의 사진미학과 감상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진의 셔터도 모르는 3자라도 훌륭한 비평을 할 수 있다. 비평가란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선 대변인이라 할 수 있음으로 만약에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제3자로선 사진작품가치를 모른다고 단정한다면 너무나 소박한 오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의 우월의식에서 작품을 생산하는 측의 작가가 나오곤 사진작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는 것은 사진인 이외의 선의의 제3자의 작품 감상을 거부하는 지극히 위험한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비평은 어디까지나 촬영된 작품자체를 가지고 논할 문제이지 지엽말단(枝葉末端)의 기술은 제2의적인 것이다. 비평기능은 어디까지나 감상자에게 작품을 해설하고 계몽하는 지도적인 입장에서 밀면 작가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작품을 자기비평기준에서 평가하고 작가에 비약할 수 있는 조연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금일의 사진 비평이 취할 바 전부는 아니다. 금일의 사진비평이 취할 바 태도란 작품과 감상자의 중간적 해설기능을 할뿐더러 비평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기주장을 지녀야 할 것이라 본다.

불행히도 한국 사단에는 특히 사진 평단은 불모인 형편에 놓여 있다. 작가의 조연자가 될 직업 비평인이 없는 불모의 황무지 속에서 사진인은 우왕좌왕 지향할 바를 모르고 있는 딱한 현실에 당면하고 있다. 저간 한국적인 과도적(過渡的) 현상으로 사진작가 수(數)인이 단편적인 비평을 시도하고 있는 형편인데 자칫하면 비평자체를 신성시하여 작가로서 비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자신의 아픈 곳을 찌른 말이면 무조건 반발하는 양극의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한심한 실정에 놓여 있다. 걸핏하면 네 작품은 얼마나 훌륭하여 남의 작품을 논하느냐 조의 비평이전의 편협한 감정과 작가 이전의 맹목적인 자만심은 빨리 탈피하여야 될 것이다.

사진비평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신성불가침의 바이블적 존재도 아닌 것이니 다만 그것이 작가적 양식에 비추어 정당한 총언이라면 수용할 아량을 지녀야하고 부당하다면 논지정연(論旨整然)하게 비평으로 응수하면 그만인 것이다. 아무나 작품을 전시 발표할 자유가 있듯 일단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 된 이상 아무나 자기비평 기준에서 비평할 자유 또한 있는 것이다. 특정인의 작품 활동과 비평행위를 동일시하여 공격한다는 것은 사진평론은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이나 '클라인'[William Klein]만이 할 수 있고 미술평론은 '피카소'[Pablo Picasso]만이 할 수 있다는 자가 무식을 폭로하는 우(愚)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 이전의 이와 같은 발언이 유독 사단에서만 운위(云誦)된다는 것은 명색이 사진작가라고 하면서 체험적 사진제작에만 치우치고 자기의 사진이론에는 백지화 되다시피 무방비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단이란 좁은 울타리 안에서 허덕 미식 대식에만 자기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차분히 자기 작품의 영양가를 검토 반성하는 기풍이 이제 있어야겠다. 상식적인 사진의 횡행(橫行)과 상식이하의 사진인의 범람을 추방하기 위하여.

셋째 "응모매수가 수만이란 일본 후지콘테스트에 기념사진이 금상과 동상에 입상하였으니 기념사진이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씨는 주장하였다. 향토사단의 증견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씨의 입에서 이와 같은 작가적 양식 이전의 논리의 비약에 접하여서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어떤 작품의 내용은 무시하고 작품의 외면적인 소재에 과민한 나머지 금상을 탄 작품과 동일한 소재를 다루면 그 작품도 금상을 탄 동일한 작품의 내용을 지닐 수 있다는 안이하고 소박한 사고방식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흥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입상된 기념사진은 내용이 공허한 사진사들이 찍는 천편일률적인 수법의 부자연하고 무표정한 단순한 기념사진은 아니었을 것이다. '위트'와 '유머'가 있고 훈훈한 '휴머니티'가 있는 말하는(내용이 있는) 사진이 입상된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씨의 내용을 무시한 편협한 소재주의가 저지른 과오의 예를 인근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여 년 전 '리얼리즘'의 제창자 도몬(土門 拳)씨가 전후 거리를 방황하는 거지를 소재로 한 사진을 발표하였는데 여타 '아마추어'들이 거지를 소재로 한 사진이면 진보적인 '리얼리즘'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여 일시 거지사진이 판을 쳐서 웃지 못 할 '넌센스'가 되었다. '리얼리스트'로서의 선열(鮮烈)한 사회 고발 의식에는 눈을 감고 편집광적인 소재에만 집념하는 안이한 소재주의의 병폐가 상금(尙金)도 향토사단에 망령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씨가 인용한 후지'콘테스트'로 말하면 사진을 작품으로서 보다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으로 즐기는 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사진부가 있고 '테마'사진, '컬러'사진, 영업사진, 보도, 상업, 외국부 등등이 있는데 총 응모의 9할이 주최 측의 성격상 순수 '아마추어'들이 응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모매수로 보면 총 20여만 매에 달하는 수도 있으나 요는 응모매수가 문제가 아니라 응모작의 작품수준이 문제되는 것이다. 응모매수론 후지 '콘테스트'에 훨씬 미달하는 일본 국제사롱이나 《이과전(二科展)》이 작품적 비중에 있어 전자를 능가하고 있음은 사진인들의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사진전의 권위를 응모매수로 운위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씨의 말처럼 후지 '콘'은 사진의 보편화에는 크게

기여하고는 있으나 명실공히 일본의 현 사단을 대표하는 '하이클래스'의 사진전은 못된다.

후지 '콘'의 금상 입상보다 일본 국제 '살롱'의 말석(末席) 입선을 영예로 보는 이유는 사진전에 응모하는 일반 응모수준에서이다. 후지 '콘'의 금상, 동상에 입상한 작품이니 예술적 가치가 있다, 없다는 식의 가치평가의 척도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치졸하다 할 수 있다.

끝으로 몇 마디 첨언 할 것은 기성이라 하여 낡은 권위만 휘두를 것도 아니요, 신인이라 하여 작품평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술 활동이란 것이 권위의 너울을 쓰고 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신인이라 하여 적당무사주의로 타협할 수는 더욱 없다. J 직장'서클'전이 사진을 취미로서 즐기려는 것은 관여할 바 아니나 낡은 내용을 새 그릇에 담았다하여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니 기술적으로 미숙함이 있더라도 보다 신선하고 창조적이며 보는 사진이 아니라 말하는 사진을 차회(次回)에 기대하는 마음에서 소신의 일단(一端)을 말한 것 뿐 인 것이다.

(필자·사진작가)

대구사진사 연표 1930년대-1980년대

연도	대구사진사	한국사진사
1900s - 1910s	1905년경 일본인 우메가네 긴조(埋金磨), 우메가네사 진관 개업. 1917. 박만달, 애선사진관(서성정) 개점.	1907년경 김규진, 천영당사진관 개점.
1920s	최유탉의 영미현사진관(1922), 서정복의 영복사진관 (1924), 최재호의 대각사진관(1926), 최해곤의 문화사 진관(1926), 배일우의 고등사진관(1927), 진두성의 남 성사진관(1928), 오여송의 일광사진관(1930) 등 한국 인 사진관 개점.	조선사진협회 주최, 《예술사진현상모집》 (1922.10.25.-27.) 개최. 1926. 조선인 사진사들, 경성사진사협회 결성.
1929		정해창, 《예술사진 개인전람회》(광화문 빌딩, 3.29.- 31.) 개최.
1930	조선일보사 대구지국 주최, 《정해창 예술사진전람회》 (대구도청 앞 임시회장, 10.9.-11.) 개최.	
1931		정해창, 《제2회 정해창 개인전람회》(낙랑다방, 9월) 개최. 삼청사진관, 《제1회 예술사진전람회》(조선일보사 평양 지국 상층, 10월) 개최. 서순삼, 조선일보 평양지국 주최, 《예술사진전람회》(조 선일보 평양지국 상층, 10.23.-25.) 개최.
1932		경성인상사진연구회 창립(현일영, 김광배, 서순삼, 이윤 성 중심), 《창립회원전》(서울대택사진재료점 2층) 개최.
1933	최계복, 일본에서 귀국. 최계복, 〈영선의 못〉 제작.	현일영, 《제1회 현일영 개인전》(평양 삼중정화랑, 10 월) 개최.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주최, 《현상사진모집》(미츠코 시(三越)백화점 갤러리, 8.25.-31.) 개최.

대구사진교육사	한국사진교육사
	1910년 황성기독교청년회 공예과 내 사진과 신설, 강사 최창근.
	1926. 근화여학교 내 여자사진과 설치, 강사 이흥경.
	1927. 신낙균(경성사진전문학교 졸업) 조선중앙 기독교청년 회학교 사진과 초빙.
	1928. 신낙균 『사진학서설』 저술.
	경성사진사협회, 사진강습원 설치.
	동광사진학원 창설(경성 낙원동).

연도	대구사진사	한국사진사
1972	《장진필 사진전》(대구백화점, 11.14.-19.)	
	《제2회 김영민 사진전》(경북공보관 화랑, 11.20.-25.)	
	《제5회 대구광화회사진전》(대구백화점 화랑, 11.21.-26.)	
	남해경 남스튜디오(북성로), 권중인, 강위원, 여상두 K 스튜디오(대신동), 양성철 목연사진연구소 운영.	
1973	문화공보부 주최,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국립현대미술관, 9.1.-20.): 김영민 <절규> 국무총리상, 강상규 <성직자의 소명일> 특선.	현대칼라 후원, 《제1회 황규태 칼라 사진전》(신문회관, 1.18.-21.)
	부산일요사진회 주최, 한국사진협회 부산지부 후원, 《제1회 사진예술강좌》(신신예식장, 9.27.-28.): 강사 정인성, 강영호.	《제11회 동아사진콘테스트》(신문회관, 6.12.-18.)
	강상규, 『인간성지』 발간: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개인 사진집.	
1974	한국일보사, 코리아타임스 주최, 《한국국제사진전》: 김일창 <일심> 흑백부문 동상.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주최, 한국사진협회 후원, 《이해선 사진작품전》(신문회관, 11. 20.-24.)
	문화공보부 주최,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김영민 <함성>, 강상규 <기구>, 장진필 <잠깐 실례> 특선.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2회 한국사진문화상》(공로상-안월산, 장남수, 작품상-최민식, 출판상-황성욱)
	김영민 사진집 『생의 찬미』(일심사) 출판: 작품집 출판 기념 《제3회 김영민 사진전》(신문회관화랑, 9.2.-8.) 개최.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신문회관, 6.15.-21.)
	한국사진협회 주최, 문화공보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전시》(11.4.-10.): 김영민, 김원영, 신현국, 이정강 참여.	
	《제7회 광화회 사진전》(대구시립도서관, 11.23.-28.)	
1975	문화공보부 주최,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장진필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문화공보부장관상, 김영민 <부채춤> 입선, 강상규 <어느 순교자의 무덤에서> 특선.	『계간 영상』(발행 이달회) 창간.

대구사진교육사	한국사진교육사
장진필, 「사진예술과 회화와의 연관에서 본 사적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구전문학교 인쇄사진과 설치(1978년 사진과로 변경). 동양미술사진학원 개원.
예림사진학원, 원장 이기철.	미국문화센터(USIS),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 《미대학생 예술 사진전》 특별심포지움(미문화센터), 심포지움 주제: 미술로서의 사진 가능성과 문제점, 연사: 임응식(중대), 이일(홍대).

연도	대구사진사	한국사진사
1975	『《창립20주년 사광회원 사진전》 작품집』 발간(6월).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덕수궁미술관, 5.2.-31.)
	《김영민 사진전 - 생의 찬미》(일본 도쿄 긴자 니콘살롱, 5.20.-25.)	중앙일보사, 동양방송 협찬, 《Aaron Siskind Photography Exhibition, Eastman House》, 미국 문화원, 5.22.-30.)
	《제5회 김영민 개인전 - 생의 찬미》(대구백화점 화랑, 9.3.-8.).	《제1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신문회관, 6.9.-15.)
	한국사진협회경북지부, 『경북사진연감』(도서출판 일심사) 발간.	
1976	《제14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차용부 (한) 특선.	강운구, 『한국의 고건축시리즈 vol.5 내설악 너와집』(도서출판 광장) 발간.
	《김일창 제2회 사진전 - 삶》(매일화랑).	
	문화공보부 주최,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3.-31.): 김영민 (나의 조국) 특선.	
1977	문화공보부 주최,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차용부 (고향) 특선.	사진전문 출판사, 사진과평론사(대표 최병덕) 설립.
1978	차용부,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대구 매일화랑, 11.14.-20., 서울 신문회관, 12.25.-30.).	1978-2005년 《동아미술제》 총 19회 개최.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한국현대미술대전: 서예·건축·사진》(국립현대미술관, 6.16.-7.15.): 참여작가 53명 중 강상규, 김영민, 김원영, 김태한, 장진필 참여, 추천 위원 문선호.	
1979	동아일보사, 동양방송 주최, 《제1회 동아미술제: 사진, 공예, 서예》(국립현대미술관, 4.4.-17.): 차용부 (그 후의 기지촌) 대상.	사진전문 출판사, 시각(대표 주명덕) 설립.
	문화공보부 주최,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김영민 (성일) 특선.	
	김일창, 『적』 출판, 《제3회 개인전》 개최.	

대구사진교육사	한국사진교육사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현 경성대학교) 사진과 신설, 김태한 출강.	
김태한, 『사진학』(형설출판사) 발간.	
김재수, 대구 YMCA 사진강좌.	
강상규, 『한국사진 발달에 대한 사적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상규, 『한국사진사』(형성출판사) 출간.	
영남사진학회(초대회장 김태한) 창립: 국내 최초의 사진학회 (1997년 현대사진영상학회로 개칭).	
김태한, 『사진미학』(형성출판사) 발간.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최인진, 육명심 공저, 『한국현대미술사: 사진』, 동화출판공사.

연도	대구사진사	한국사진사
1979	양성철, 『잔상』 발간, 《잔상》(매일화랑) 개최.	
1980s	1980.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부, 『안월산유작 사진집』(한국사진작가협회경상북도지부) 출판.	
	1981. 《차용부 초대사진전-창》(대구 YMCA화랑, 19.-25.) 이정강, 『회갑 기념 이정강 사진집』 발간.	1981. 그랜드베어갤러리 개관(1982년 파인힐갤러리로 상호 변경).
	1982. 사진전문전시장, 묵언화랑 개관. 《郎靜山 초대전 합동 4인 사진전-김일창, 강위원, 김동철, 유재성》(세종문화회관, 18.-22.).	1982. 문화공보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폐지.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대한민국사진대전》 개최. 《임응식 회고전》(국립현대미술관, 6.21.-7.4.) 개최. 임응식, 『풍모』(도서출판 시각)발행.
	1983. 《강상규 사진초대전-학》(대구 태백화랑, 12.-17.) 개최.	1983. 문선호 편저, 『한국현대사진대표작선집』(금성출판사) 발간.
	1985. 대구사광회, 『창립30주년 기념 사광회 작품집』 발간.	1984. 사진공방 타임 스페이스(Workshop Time-Space) 개관(김승근, 임향자 공동대표, 서울 마포구 성산동).
	1988. 《사진, 새시좌》(위커희미술관, 5.18.-6.17.) 개최.	

대구사진교육사	한국사진교육사
	1980. 서울예술전문대학 사진과 설치.
1981. 대일전문대학(대구미래대학교로 개명하여 2018년 폐교) 사진과(학과장 강상규) 설치: 강상규, 권종인, 석재현 출강.	1981. 사진학과교수협의회 창립(1982년 한국사진교육학회, 1993년 한국사진학회로 개칭).
1983. 계명전문대학(현 계명문화대학교) 사진영상과(1982년 사진과에서 변경, 학과장 장진필) 설치.	1982. 버몬트 뉴홀 저, 최인진 역, 『세계의 사진사』, 서문당.
1985. 사진문화연구소 설립(소장 강상규).	1983. 한국사진사연구소, 『사진사연구』 창간호 발행.
1988. 경북산업대학(현 경일대학교) 사진영상과(학과장 임태석) 설치.	1985.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신설(초대 학과장 김태한).
1989. 신일전문대학(현 수성대학교) 사진과(학과장 차용부) 설치.	1987. 사진학회 카메라 루시다 창립(1988년부터 학회지 『밝은 방』 총5권 발간).

주요 작가 연보

·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로 표기

강영호(姜榮浩, 1928-1989)

대구사우회(1954), 한국사진협회.

-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이학박사.
- 1953 한국사진예술학회 사진광학 강의.
- 1955 전국사진사업협회 연수회 사진과학 강의.
- 1958 대구 미국문화원 사진강좌 강사 역임.
- 1959 호주 시드니 《제2회 국제사진살롱》: 〈아뜨리에〉 흑백 부문 입선.
《제2회 대구사우회 작품전》(한국사진작가협회경북지부, 경북사진작가연맹, 대구일보사 후원, 대구 미문화원, 3.8.-10.).
- 1960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당선작품 걸작사진전》(국립도서관, 4.9-15.).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미문화원, 12.1.-4.).
- 1962 호주 시드니 《국제사진살롱》: 〈희상〉 흑백부문 최고상. 시민교양강좌 사진강좌 강사 역임.
《제1회 신라문화제》(대구 일대, 4.21.-23.) 사진부문 심사위원.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 1963 호주 멜버른 《국제사진살롱》: 〈고엽〉 입선.
미국 U.S. 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귀로〉 흑백부문 6등.
경상북도 주최, 《경북문화상》 미술상 수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 대구사우회 주관,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 국제사진살롱위원회 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북지부 감사 역임.
《제1회 부산예술제 초대전》(3.21.-27.).
- 1964 한국창작사진협회 운영위원.
스페인 《국제사진살롱》: 칼라부문 〈만추〉 동상.
경북사진협회 주최, 《제4회 회원전》(USIS화랑, 12.25.-30.).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3회 초대작가 사진전》(중앙공보관, 5.21.-27.).
- 1965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1회 창협전》(중앙공보관, 1.11.-17.).
경북사진협회 주최, 《제5회 회원전》(경북공보관 화랑, 10.26.-11.1.).

- 월산예술학원 출강.
- 1967 《대구 사진인동인전》(중앙공보관, 1.4.-9.).
- 1968 대구 YMCA광화회 고문 역임.
- 1970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 미전분과 심사위원.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중앙이사 역임.
- 1971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 1972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 1973 부산일요사진회 주최, 한국사진협회 부산지부 후원, 《제1회 사진예술강좌》 강사.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 1973-75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사진분과 심사위원장.
- 1974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1975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사진분과 심사위원.
- 1975-78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사진분과 심사위원.
- 1979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10걸상》 수상.
- 1980-81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사진분과 심사위원.
- 1981 부일사진동우회 주최, 《부일사진집 초대전》.
- 1984 《제3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운영위원.
- 1989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부 공로상 수상.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 「〈아뜨리에〉 강영호 작」, 『조선일보』, 1959.9.18.
- 강영호, 「바른 인식 뚜렷한 논리를, 구왕삼 씨의 「사단총평」을 읽고」, 『대구매일신문』, 1959.12.29.

주간지/월간지/계간지

- 「대구동인사진전」, 『포토그래피』, 1967년 1-2월, 17.

단행본/논문

- 강영호, 『강영호 사진집』(목언출판사, 1989).

인쇄물/기타

-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당선작품 걸작사진전》(국립도서관, 1960. 4.9.-15.).
-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 [홍보물] 부산일요사진회, 《제1회 사진예술강좌》(신신예술장, 1973.9.27.-28.): 강사 정인성, 강영호.

구왕삼(具王三, 1909-1977)

대구아마추어사우회, 대구사연회, 대구광화연구회, 경북사진문화연맹, 대구사광회.

- 1909 경상남도 김해 출생.
- 1946 경북사진문화연맹 주최, 《건국사진공모전》(대구 공회당화랑, 11.26.-30.): 〈군동〉 제2부 특선.
- 1947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7.15.-18.): 〈안개낀 아침〉 준특선, 〈콩나물〉, 〈들장미〉, 〈미소〉, 〈표백〉 입선.
『영남일보』를 시작으로 사진평론 개진.
- 1953 대구광화연구회 회장 역임.
- 1959 경북사진문화협회 최고위원 역임.
- 1962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신인예술상》 심사위원.
- 1963-65 동아일보사 주최, 《제1-3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
- 1966 《구왕삼시사전》(광주 YMCA살롱, 6.9.-13., 목포 밀물다방, 6.28-7.3.).
- 1967 《구왕삼시사전》(김해 돌다방, 3.8.-13., 진주, 5.17.-?).
- 1971 한국사진협회 회원.
- 1977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 「찬송가 개정 편찬 동경서 문헌 수집」, 『동아일보』, 1934.12.6.
- 구왕삼, 「대구사진계를 논함」, 『영남일보』, 1947.5.25., 5.27.
- _____, 「문화, 초상사진 소감(상)」, 『영남일보』, 1949.4.8.
- _____, 「문화, 인상사진전평」, 『영남일보』, 1949.7.13., 7.20.
- _____, 「세계사단의 동향, 한국사단의 세계적 시야를 위하여」, 『대구매일신문』, 1954.12.12.
- _____,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 『동아일보』, 1955.2.17.
- _____, 「학생사진의 진로」, 『조선일보』, 1955.3.16.
- _____, 「바다와의 대화, 제2회 포항사우회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5.5.29.
- _____, 「해외사진작가소개 '부렛슨'의 작품」, 『대구매일신문』, 1955.5.29.
- _____, 「사진의 아마추어 정신」, 『동아일보』, 1955.9.6.
- _____, 「리얼리즘 사진의 진로」, 『대구매일신문』, 1955.10.16.

- _____, 「주체의식을 확립하라」, 『동아일보』, 1955.11.12.
- _____, 「과녁에의 대결 대구부산 합[동] 사진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6.3.4.
- _____, 「한국사진작가 프로필 - 임응식 편」, 『대구매일신문』, 1956.3.21.
- _____, 「진부한 흥작전, 제2회 《대구사광회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6.12.16.
- _____, 「푸로이즘의 확립」, 『동아일보』, 1957.3.2.
- _____, 「자연시와 조형화 김원영사진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7.3.8.
- _____, 「급조의 무계획성, 사진작가단 창립전을 보고」, 『동아일보』, 1957.3.16.
- _____, 「사진비평론, 작가와 평자와의 협조정신을 위하여」, 『영남일보』, 1957.3.31.
- _____, 「라이프지 발전의 비밀 - "진실을 대중에게"의 사시」, 『대구매일신문』, 1957.6.15.
- _____, 「상상성의 결여, 제2회 김진욱사진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7.10.18.
- _____, 「그릇된 사단의식, 유평과 당파를 구별하라」, 『대구매일신문』, 1957.12.3.
- _____, 「조화된 내면묘사와 조형미, 박영달사진전을 보고」, 『대구일보』, 1957.12.12.
- _____, 「경북지역문화 1년의 회고 1957, 모색에의 진통 개인전의 전진과 집단전의 후퇴」, 『대구매일신문』, 1957.12.22.
- _____, 「국제싸롱의 역사」, 『대구매일신문』, 1957.12.29.
- _____, 「사진의 독창성과 예술성」, 『동아일보』, 1958.3.15.
- _____, 「불안한 저미의 대구사단, 제10회 사협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8.11.11.
- _____, 「빈곤한 논조(상), (중), (하) 김태한 씨의 사진평에 답함」, 『대구일보』, 1958.11.17.-19.
- _____, 「사진의 '고전' 문제(상), (하) 김태한 씨의 논박에 다시 답하여」, 『대구일보』, 1958.11.28.-29.
- _____, 「고전과 역사적 가치는 이질, 사진 예술의 이해를 위하여」, 『대구일보』, 1958.12.8.
- _____, 「권태기의 고민 - 정신의 호수는 고갈상태」, 『대구매일신문』, 1958.12.16.
- _____, 「"사진"은 있어도 '작품'은 없었다」, 『대구매일신문』, 1959.12.18.
- _____, 「6.25 10년◎ 사진 - 활기 띤 해외진출」, 『대구매일신문』, 1960.6.30.

_____, 「진통에서 새 발전으로 - 활기 띤 해외진출의 해」, 『매일신문』, 1960.12.19.

_____, 「향토사진의 방향과 활동 - 국제 '싸롱'의 진출을 중심으로」, 『매일신문』, 1961.3.2.

_____, 「생명적인 사진(상)-(완)」, 『영남일보』, 1961.5.6.-10.

_____, 「사진조형의 시각음악 - '살롱 · 아루스'의 대구이동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1.11.14.

_____, 「1961년도 향토 문화계의 결산」, 『매일신문』, 1961.12.26.

_____, 「지성의 총명을 잃지 말자 - 경북사단 단합의 조성을 위해」, 『매일신문』, 1962.7.1.

_____, 「비평의 '모랄' 백해무익한 인신공격을 삼가하자」, 『매일신문』, 1962.8.10.

_____, 「허구성의 논쟁, 박정봉 씨에 답함」, 『매일신문』, 1962.8.31.

_____, 「심사소감 한국사진의 문제점」, 『동아일보』, 1963.10.29.

_____, 「광복 20년의 문화계 지표⊙ 사단, 전환기에 선 사진의 자세 - 사진의 《국전》 참가를 계기로」, 『매일신문』, 1964.8.27.

_____, 「심사소감 주관의 투영이 없이」, 『동아일보』, 1965.6.26.

_____, 「퇴색된 구작전, 신춘창작사진전의 인상」, 『매일신문』, 1966.1.28.

_____, 「휴먼'한 작가정신, 배상하유작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6.5.11.

「국전론」, 『조선일보』, 1966.10.18.

주간지/월간지/계간지

구왕삼, 「사진시평(대구)」, 『사진문화』, 1949년 5월, 16-17.

_____, 「예술사진동인전평」, 『사진문화』, 1950년 1월, 22-23.

_____, 「사단의 당면문제」, 『사진문화』, 1950년 6월, 6-8.

_____, 「해방사단 20년 측면사」, 『사진예술』, 1966년 9월, 36-38.

_____, 「해방사단 20년 측면사(하)」, 『사진예술』, 1966년 10-11월, 40-42.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구왕삼시사전》(김해 둘다방, 1967.3.8.-13., 진주, 1967.5.17.-?).

김영민(金榮敏, 1913-1992)

대구사광회, 대구광화회.

1913 경상남도 진주 출생.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35 《전국대학 전문학생전》: 〈호반의 여인〉 입선. 사진계 입문.

1956 동아일보사 포항지국 주최, 《아마추어남량촬영대회》: 〈일광곡〉 특선(도지사상).

1960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12회 한국사진작가협회전》: 〈한담〉 입선.

1961 미국 U.S. 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환율 1,300대1〉 6등.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22회 국제사진살롱》: 〈강아지〉 입선.

1961,62,66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역임.

1962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신인예술상》(중앙공보관, 5.1.-16.): 흑백부문 〈합심〉 외 1점 입선, 스페인 《제5회 국제사진살롱》: 〈아리랑저고리〉 칼라부문 입선.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1965 문교부 주최,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궁미술관, 10.16.-11.15.): 〈프로필〉 입선, 호주 뉴캐슬 《제4회 국제사진살롱》: 〈명상〉 칼라부문 입선.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1965-66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역임.

1966 동아일보사 주최, 《제4회 동아시아콘테스트》: 〈연인〉 칼라부문 입선, 공보부 주최, 《제5회 신인예술상》(예총회관 화랑, 5.28.-6.5.): 〈승부〉 칼라부문 입상, 문교부 주최,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궁미술관, 10.16.-11.16.): 〈절경〉 특선, 〈귀소〉 입선, 《제1회 한국국제전》: 〈추억〉 칼라부문 입선, 서독 플론 《제6회 국제사진살롱》: 〈회상〉 외 1점 칼라부문 입선, 일본 《모리타 컬러 캘린더 국제전》: 〈행복한 여인〉 입상. 한국사진협회, 매일신문사 후원, 《김영민 사진전(제2차 도미기념)》(서울 예총회관, 9.9.-13., 대구 경북공보관 9.16.-19., 부산 10월).

1966-67 한국사진협회 주최, 공보부 후원, 《제1-2회 전국 대학생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 역임.

1969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1970-71 대구광화회 회장 역임.

1971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일보 국제전》: 〈성하의 점경〉 칼라부문 입선.

1972 문화공보부 주최,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국립공보관, 9.11.-30.): 〈평화의 기도〉 특선, 〈통일기원〉 입선. 《제2회 김영민 사진전》(경북공보관 화랑, 11.20.-25.). 동아일보사, 동아방송 주최, 《제11회 동아시아사진콘테스트》: 〈인정〉 특선, 동아일보사, 사진동우회 주최, 《제8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인산〉 칼라부문 입선, 미국 시카고 《제28회 국제사진살롱》: 〈항거〉 칼라부문 입선. 동아일보사 사진동우회 회장 역임.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국립현대미술관, 9.1.-20.): 〈절규〉 국무총리상.

1974 한국사진협회 주최,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전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1.4.-10.). 문화공보부 주최,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합성〉 특선. 동아일보사, 사진동우회 주최, 《제9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원풍년〉 칼라부문 입선. 《제3회 김영민 사진전 - 작품집 『생의 찬미』 제1집 출판 기념》(신문화관화랑, 9.2.-8). 『생의 찬미』(일심사) 출간.

1975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부채춤〉 입선. 《김영민 사진전 - 생의 찬미》(일본 도쿄 긴자 니콘살롱, 5.20.-25.). 《제5회 김영민 개인전 - 생의 찬미》(대구백화점 화랑, 9.3.-8.).

1975-77 한국사진협회(1977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개칭) 경북지부 지부장.

1976 문화공보부 주최,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3.-31.): 〈나의 조국〉 특선.

1978 문화공보부 주최,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2.-31.): 〈단합〉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한국현대미술대전: 서예·건축·사진》(국립현대미술관, 6.16.-7.15.).

197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5.1.-30.): 〈성일〉 특선.

1980-8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제29-30회 대한민국미

술전람회》 초대작가.

1992 작고.

관련 자료

단행본/논문

김영민, 『생의 찬미』(일심사, 1974).

주간지/월간지/계간지

「김영민 사진전」,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47.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2회 김영민사진전》(경북공보관, 1972.11.20.-25.).

[전시 팸플릿] 《제3회 김영민사진전》(신문화관 화랑, 1974.9.2.-8.).

[홍보물(엽서)] 《김영민 개인전 - 생의 찬미》(일본 도쿄 긴자 니콘 살롱, 1975.5.20.-25.).

[홍보물(엽서)] 《제5회 김영민개인전 - 생의 찬미》(대구백화점 화랑, 1975.9.3.-8.).

김원영(金元榮, 1916-1984)

대구사우회(1947), 한국사진협회.

*	영남일보사 사진부 기자 재직.
1948	영남일보사 주최, 《향토예술사진전》: (한정) 준특선, 〈달려다 달려〉 외 2점 입선, 〈조춘〉 가작.
1949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주최, 《제1회 전국어린이사진전람회》: 가작, 서울사진재료상조합, 조선사진문화사 주최, 《전국종합사진대현상모집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8.16.-22.): 〈내장사의 인상〉나부 특선1석, 국제보도연맹, 미공보원 주최, 《제2회 한국향토문화사 진전》(미국문화연구소, 11.9-15.): 준특선.
1950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 《제2회 전국어린이사진전람회》(서울 미국문화원, 5.11.-18.): 최우수작.
*	《오인동인전》(미국공보원).
1952	한국사진예술학원 사진기계학 강의.
1956	경북사진작가연맹 부위원장 역임.
1957	《김원영사진개인전》(미국문화관, 3.4.-10.). 한국사진협회 부회장 역임.
1962	《김원영 칼라사진전》(중앙공보관, 4.21.-25.).
1963-64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역임.
1964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1965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4회 신인예술상》 심사위원. 월산예술학원 출강
1966	《제5회 무지개회 칼라사진전》(중앙공보관화랑, 10.12.-17.).
1968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COLOR 작품전》(국립공보관, 9.7.-15.).
1971-75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1973-74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역임.
1974	《제9회 전국학생사진공모작품전》,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전시》, 《제1회 전국아마추어사진 촬영대회》 심사위원.
1975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4회 한국사진문화상》 공로상 수상.
1978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한국현대미술대전: 서예·건축·사진》(국립현대미술관, 6.16.-7.15.).
1984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내장사의 인상) 특선1석」, 『동아일보』, 1949.7.10.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계 소식) 제5회 무지개회 칼라사진전」,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67.

「(좌담회) 무지개회와 칼라사진」, 『포토그래피』, 1968년 1-2월, 72.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김원영 칼라 - 사진전》(중앙공보관, 1962.4.21.-25.).

[전시 팸플릿]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COLOR 작품전》(국립공보관, 1968.9.7.-15.).

김재수(金在洙, 1929-2006)

대구사우회.

1929	대구 출생.
1960	일본 《후지콘테스트》: 외국부 동상 입상.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미국문화원, 12.1.-4.).
*	흑백사진현상소 영신당 운영.
1962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인도 콜카타 《제4회 국제사진살롱》: (S홀의 인상) 입선, 호주 애들레이드 《국제사진살롱》: 〈고독〉 입선, 호주 빅토리아 《국제사진살롱》: 〈신생〉 입선. 신사실·영광클럽 주최, 《제2회 이미전 - 회화와 사진》(USIS, 1.13.-16.).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196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 대구사우회 주관,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 국제사진살롱위원회 위원.
1965	효성여자대학(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응용미술과 사진학 강의.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1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1965.1.11.-17.).
1965-66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역임.
1966	《제2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1966.7.26.-8.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북지부 주최, 《제3회 경북사진전》(경북공보관 화랑, 12.12.-14.).
1967	《제10회 대구사우회 작품전》(경북공보관, 6.10.-15.). 《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3.29.-4.3.).
1968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중앙공보관, 1.22.-2.10.). 《제4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6.6.-12.).
1970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본부공로패 수상.
1972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9회 전국회원전》(예총화랑, 2.20.-24.).
1975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75-76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부지부장 역임.
1975-85	대구 YMCA사진교실 강의.
1979	동아일보사, 동아방송 주최, 《제14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심사위원.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0	파리 《르살롱전》(그랑팔레, 4.23.-25.): 〈실(實)〉 금상 수상.
1981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목련회 고문 역임.
1981-82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부 지부장 역임. 《제1-2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
1982,86,98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1회, 5회, 7회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심사위원.
1984-87	《제4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제5-7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역임.
1990	경산사우회 고문 역임.
1993	《제15회 전국흑백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역임.
1995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34회 한국사진문화상》 공로상 수상.
1996	금북문화재단 주최, 《금북문화상》 수상.
1999	《제19회 대구사진대전》 심사위원장.
2000	《제22회 전국흑백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역임.
2001	《제21회 대구사진대전》 심사위원.
2006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김재수, 「비평과 지도이념 - 구 씨의 「향토사진의 방향과 활동」을 읽고」, 『매일신문』, 1961.3.7.

_____, 「구상과 비구상 사진소고(상), (하) - 추상과 사실주의 사진을 중심으로」, 『대구일보』, 1961.6.6.-7.

_____, 「사진의 보편화와 예술성 - B 씨의 「뽕 맞아야 할 기성」을 보고」, 『영남일보』, 1963.7.13.

_____, 「비평보다는 자기성찰을㉠, ㉡ - 「헐뜯기 위한 상투적 용어」에 답하여」, 『영남일보』, 1963.7.24.-25.

_____, 「비평보다는 자기성찰을 - 「헐뜯기 위한 상투적 용어」에 답하여」, 『영남일보』, 1963.7.26.

배상하, 「자기성찰」은 자신부터 - 김재수 씨의 글에 답하여」, 『영남일보』, 1963.7.28.

김재수, 「비평과 비방과」, 『영남일보』, 1963.8.1.

_____, 「개성의 결여와 혼돈, '싸롱 아르스' 사진전 후감」, 『영남일보』, 1963.11.30.

「세 사진작가 수상을 거부, 심사위 구성에 불만」, 『조선일보』, 1964.10.15.

김재수, 「광복 이후의 대구사단」, 『영남일보』, 1969.8.20.

「김재수 이정자 박윤배 씨 금상 불[란서] 《르 살롱》전 - 김한오 씨 등」, 『동아일보』, 1980.5.9.

주간지/일간지/계간지

「경북사협 제6회전」, 『포토그래피』, 1967년 1-2월, 72.

김재수, 「제언: 페어플레이 정신의 결여」, 『사협 60호』, 1984년, 33-35.

정흥기, 「대구원로사진가 김재수」, 『포토하우스』, 1999년 8월, 8-9.

김태한(金泰漢, 1928-2004)

대구사우회, 대구사진연구회(1974).

- 1928 경상북도 영천 출생.
- 195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학과 졸업.
- 1955-74 계성고등학교 물리 교사.
- 1958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10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작품발표전》(중앙공보관, 10월): 〈내 얼굴 어때!〉 추천 문교부장관상.
- 1960 호주 시드니 《국제사진살롱》: 〈바다의 세 소년〉 입선.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미문화원, 12.1.-4.). 《회화와 사진전》(USIS, 3.14.-17.).
- 1961 호주 멜버른 《제6회 국제사진살롱》: 〈신감각〉 입선.
- 1962 베트남 《제2회 국제사진살롱》: 〈하오의 연정〉 입선, 인도 콜카타 《제4회 국제사진살롱》: 〈반영〉 입선, 호주 애들레이드 《국제사진살롱》: 〈도공〉 입선. 신사실.영광클럽 주최, 《제2회 이미전 - 회화와 사진》(USIS, 1.13.-16.).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 196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 대구사우회 주관,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 국제사진살롱위원회 사무처장 역임.
- 1964 자유중국 《국제사진살롱》: 〈폐허〉 흑백부문 입선.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3회 초대작가 사진전》(중앙공보관, 5.21.-27.). 대구초급대학(현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사진학 강의.
- 1965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1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1.11.-17.). 월산예술학원 출강.
- 1967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3.29.-4.3.). 《대구사진인동인전》(중앙공보관, 1.4.-9.).
- 1971 경상북도 주최, 《경북문화상》 수상.
- 1974 대구사진연구회 회장 역임.
- 1975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 교수 역임. 『사진학』(형성출판사) 출간.
- 1977 『사진미학』(형성출판사) 출간.
- 1978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한국현대미술대전: 서예·건

축·사진》(국립현대미술관, 6.16.-7.15.).

1979 부산산업대학 예술대학 교수 역임.

1985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창설, 초대학과장 역임.

1987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26회 한국사진문화상》 공로상 수상.

1990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1991 《개인전》(경성대학교 화랑).

1993 『김태한 사진집』(열화당) 출간.

1998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역임.

2004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김태한, 「논조 이전의 빈곤, 구왕삼 씨의 소론을 다시 박함」, 『대구일보』, 1958.10.25.

_____, 「옳은 사진작품 평을 위하여, 구왕삼 씨의 「불안과 저미의 대구사단」을 읽고」, 『대구일보』, 1958.11.14.

_____, 「고전과 역사적 가치, 구왕삼 씨의 「사진의 고전문제」를 보고」, 『대구일보』, 1958.12.4.

_____, 「의욕적인 직장전 - 제3회 전남사진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60.1.18.

_____, 「결허된 인간성, 이정강 《뽀오트레이드》전을 보고」, 『대구일보』, 1960.10.4.

_____, 「사진사의 시점과 예술 - 혼잡해버린 비평정신을 읽고」, 『매일신문』, 1960.11.10.

_____, 「1961년의 회고 - 사단, 사상누각으로부터 반석위에 구축」, 『영남일보』, 1961.12.15.

_____, 「상반기 경북문화의 자취 '사단', 갈등과 의욕의 쌍곡선」, 『매일신문』, 1962.7.20.

_____, 「문제의식의 결핍, 대구사우회 10회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7.6.15.

주간지/계간지/월간지

「대구동인사진전」, 『포토그래피』, 1967년 1-2월, 17.

김태한, 「《24회 국전》 사진을 보고 - 다양한 소재 훌륭한 인화 처리」, 『포토그래피』, 1975년 6월, 49.

_____, 「사진의 양식과 그 방법」, 『영상』, 1978년 8월, 44-47.

_____, 「사진의 양식과 그 방법(2)」, 『영상』, 1978년 9월, 44-48.

단행본/논문

김태한, 『사진학』(형성출판사, 1975).

_____, 『사진미학』(형성출판사, 1977).

_____, 『김태한 사진집』(열화당, 1993).

임영균, 『사진가와와의 대화: 한국사진을 개척한 원로사진가 8인과의 대담』(눈빛, 1998).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신사실.영광클럽 주최, 《제2회 이미전 - 회화와 사진》(USIS, 1962.1.13.-16.).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도봉준(都逢俊, 1923-2010)

대구오광회, 대구사광회.

단행본/논문

도봉준, 『도봉준 사진집』(1999).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당선작품 걸작사진전》(국립도서관, 1960.4.9.-15.).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1923	대구 출생.
1940	일본 대판전기학과 졸업.
1945	도전기상회 운영.
1955-57	대구매일신문사 사진부 기자 재직.
1956	《제1회 향토사진전》: 〈선포작업〉 준특선, 〈선포건조〉, 〈이렇게 한다〉, 〈빛나는 국산품〉 입선, 외무부 주최, 《해외사진전》: 〈다보탑〉 입선,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제2회 어린이 사진공모전》: 〈내 꺼다〉 추천작가, 〈터진다〉, 〈실뜨기〉 입선.
1957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17회 국제사진살롱》: 〈여생〉 입선.
1958-61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부 부지부장 역임. 영남일보사 사진부 기자 재직.
1959	《삼일절 예술제》 초대작가.
1960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당선작품 걸작사진전》(국립도서관, 4.9.-15.).
1961	《재건국민운동예술제》, 《제5회 밀양문화제》 초대작가.
1961-63	한국사진협회 회원.
1962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감사 역임. 《대한사진화학》 초대작가.
1963	《경남예술제》 초대작가.
1998	《대구근현대사진전》(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0.13.-18.). 《한국사진역사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1.20.-12.19.).
1999	『도봉준 사진집』 출간. 《도봉준 사진전》(동아미술관, 3.18.-23.).
2010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광고)도전기상회』, 『대구시보』, 1946.11.19., 11.21., 11.23.

『사실주의' 사진인생 50여년 - 지역 사단 원로작가 도봉준 씨 첫 개인전』, [매체미상], 1999.

박달근(朴達根, 1926-2000)

대구사우회, 한국창작사진협회.

*	경북대 농대 농예화학과 졸업.
1954	대구사우회 총무간사 역임.
1955-92	대륜고등학교 교사, 교내 사진부 지도교사.
1962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2회 신인예술상》(중앙공보관, 3.19.-25.): 입선.
1963	프랑스 《제8회 낭트국제사진살롱》: 〈노인〉 외 1점 입선. 호주 멜버른 《국제사진살롱》: 〈이어링〉 입선. 미국 U.S 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흑백 부문 6등, 컬러부문 4, 5, 6등.
1964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동심〉, 〈하동〉 입선.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국미술관, 10.1.-11.15.).
1965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1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1.11.-17.).
1966	《제2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7.26.-8.1.). 《개교 45주년 기념 대륜전》(경북공보관 화랑, 9.15.-17.) 사진 지도교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북지부 주최, 《제3회 경북사협전》(경북공보관 화랑, 12.12.-14.).
*	호주 시드니 《제8회 국제사진살롱》: 〈인종(忍從)〉 입선.
1967	한국창작사진협회 운영위원, 예총경북지부 이사.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3.29-4.3.). 한국신문회관 주최, 《제5회 보도사진 전시회》(신문회관 전시실, 8.18.-24.). 『사진교실』(송원문화사) 출간. 《개교 46주년 기념 대륜전》(경북공보관, 9.14.-19.) 사진 지도교사.
1968	미국 U.S 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1점 4등, 2점 5등, 2점 6등.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중앙공보관, 1968.1.22.-2.10.).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COLOR 작품전》(서울 국립공보관, 9.7-15., 광주 학생회관, 9.21.-27., 경북공보관, 10.9.-14., 부산공보관, 10.28.-

11.3.). 경상북도 주최, 《경북문화상》 수상.	
1969	《제5회 한국창협사진전》(국립공보관, 11.4.-11.8.).
1971	한국사진협회 주최, 《10결상》 수상.
1973	《누드사진 7인전》(대구백화점 화랑).
1974	《제1회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초대작가.
1979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부 본부공로패 수상.
1980	《제1회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1	《제1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1982	일사회 고문 역임.
1983	《제3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
1984,86,90	《제4, 6, 10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7-2000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초대작가, 운영위원.
1989-90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부 지부장.
1991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직할시지회 공로패 수상.
1991-95	《제11-15회 대구사진대전》 심사위원.
2000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세 사진작가 수상을 거부, 심사위 구성에 불만』, 『조선일보』, 1964.10.15.

주간지/계간지/월간지

『(사진) 〈인종(忍從)〉, 박달근 제8회 시드니국제사진전 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9.

『대륜고교사진전』,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49.

『(사진계 소식) 경북사협 제6회전』, 『포토그래피』, 1967년 1-2월, 72.

『(사진) 창협 제3회 회원전에서 〈역정〉, 박달근』, 『사진예술』, 1967년 5월.

『(사진계 소식) 46회 대륜전 사진부』, 『포토그래피』, 1967년 9-10월, 91.

단행본/논문

박달근, 『사진교실』(송원문화사, 1967).

박삼식(朴三植)

대구아마추어사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대구사연회, 조선사진동맹.

- 1937 대구아마추어사우회 활동.
- 1938 전조선사진연맹, 경성일보사 주최, 《제5회 조선사진 살롱》(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10.-14.): 〈늦가을〉 입선, 경성일보사 주최, 《칙제조양영도인화현상사진 모집》: 입선, 일본 사진신보사 주최, 월례 사진공모: 〈엄마를 기다림〉 제1부 특선, 제2부 입선.
- 1947 대구사연회 회장 역임. 대구사연회 주최, 《해양촬영대회》 개최. 조선사진동맹 대구지부 위원장 역임.

관련 자료

일간지

- 「사진동맹지부 위원장에 박삼식 씨」, 『영남일보』, 1947.7.29.
- 「사맹 조직개편 강화」, 『대구시보』, 1947.8.28.

박영달(朴英達, 1913-1986)

대구사광회, 한국사진협회, 흐름회.

- 1913 대구 출생.
- 1938-45 『대구일보』 포항지사 기자 재직.
- 1950 포항문화원 이사 역임.
- 1952-66 청포도 다방 운영.
- 1957 《제1회 박영달 사진개인전》(대구 미국문화원, 12.9.-15.).
- 1958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18회 국제사진살롱》: 〈풍선〉 입선.
- 1960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당선작품 걸작사진전》(국립 도서관, 4.9-15.). 흐름회 조직, 1980년 회장 역임.
- 1961 《제2회 박영달 사진개인전》(대구 USIS화랑, 5.13.-15.).
- 1962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 196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부 부지부장 역임.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23회 국제사진살롱》: 〈길동무〉 입선.
- 1964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 미술관, 10.16.-11.15.): 〈눈 오는 날〉 입선.
- 1967 동아일보사 주최, 《제5회 동아시아진콘테스트》: 〈노도의 위협을 뚫고〉 가작.
- 1967-75 박영달사진아틀리에 운영.
- 1969 《제1회 박영달 개인사진전》(제일다방, 11.12.-16.).
- 1970 매일신문사 주최, 《제15회 어린이 사진공모전》 심사 위원.
- 1975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1982 수필집 『난을 치는 두 마음』(교음사) 출간.
- 1986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 박영달, 「사진의 세계성, 56년판 포토그래피 연감을 보고」, 『대구 매일신문』, 1956.3.21.
- 구왕삼, 「조화된 내면묘사와 조형미, 박영달사진전을 보고」, 『대구 일보』, 1957.12.12.
- 「(카메라의 사고) 박영달사진전이 시사하는 것」, 『대구매일신문』,

- 1957.12.16. 「이해문 박영달 양 씨 입선 국제사진살롱에」, 『경향신문』, 1958.1.24.
- 「사진은 〈풍선〉」, 『조선일보』, 1958.2.2.
- 박영달, 「대구사단에 제언함(상), (하) - 작가와 비평가의 상용성을 밝히며」, 『대구일보』, 1959.1.6.-7.
- _____, 「감수성의 갱신, 새로움을 찾는 사진가의 자세(상), (하)」, 『대구일보』, 1960.1.6.-7.
- 「〈노도의 위협을 뚫고〉」, 『동아일보』, 1967.6.15.

주간지/월간지/계간지

- 박영달, 「사진론 - 세계의 사진화」, 『사진예술』, 1966년 8월, 34-36.
- _____, 「사진의 회화성과 문학성 - 세계의 사진화」, 『사진예술』, 1966년 9월, 39-41.
- _____, 「포토에세이 경이의 눈」, 『카메라예술』, 1968년 10월, 27.
- _____, 「포토에세이-춧불」, 『카메라예술』, 1968년 12월, 99.
- _____, 「포토에세이-자연미와 인공미」, 『카메라예술』, 1969년 3월, 43.
- _____, 「(사진)〈출어〉, 박영달」, 『카메라예술』, 1969년 3월.
- _____, 「전통과 고전 위에서」, 『카메라예술』, 1969년 4월, 30-32.
- _____, 「포토에세이-양지를 향하는 마음」, 『카메라예술』, 1969년 8월, 27.
- _____, 「포토에세이-순백」, 『카메라예술』, 1969년 12월, 35.
- _____, 「현대사진에 대한 소고」, 『영상』, 1977년 3월.

단행본/논문

- 박영달, 『난을 치는 두 마음』(교음사, 1982).
- [전시도록] 『추당 박영달 회고전 - 사진예술과 휴머니즘』(포항시 립미술관, 2016).

인쇄물/기타

- [전시 팸플릿] 《제2회 박영달사진전》(대구 USIS화랑, 1961.5.13.-15.).
-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배상하(裵相河, 1922-1965)

대구광화연구회, 대구사광회, 한국사진협회.

- 1922 경상북도 왜관 출생.
- 1947 경북사진문화연맹 주최, 《삼일기념사진촬영경기대회》: 〈훈풍〉 가작.
- 1951 김천신문사 기자 역임.
- 1955 전국사진가연합회 주최, 《전국사진가연합회 창립기 녘전》: 〈승강구〉 입선.
- 1956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울미국공보원 주최, 《한미합동 “한국가족” 사진전》(미국공보원 화랑, 12.17.-22.).
- 1957 경북문화예술인연합회 사진부문 간사 역임.
- 1959-64 매일신문사 사진부장 역임.
- * 삼영사 DPE점 운영.
- 1962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22회 국제사진살롱》: 〈수녀 수산나〉 입선, 프랑스 《제7회 낭트국제사진살롱》: 〈대나무 벽〉 입선,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신인예술상》(중앙공보관, 5.1.-16.): 입선.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 1962-67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어린이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 1963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23회 국제사진살롱》: 〈손〉 입선,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동아시아진콘테스트》: 〈기구〉 가작, 〈소리없는 교실〉 입선, 홍콩 《제17회 국제사진살롱》: 〈미완성A〉, 〈공사장〉 입선.
- 1964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24회 국제사진살롱》: 〈소리없는 교실〉 입선, 《제15회 싱가포르국제사진살롱》: 〈빙판의 환상〉 입선,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동아시아진콘테스트》: 〈투망〉 입선,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11.15.): 〈환상〉 입선.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 1965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배상하, 『뽀뽀 맞아야 할 '기성' '장미사광회' 회원에 드림, 『영남일보』, 1963.7.10.
 _____, 『혈뜻기 위한 상투적 용어 「사진의 보편성과 예술성에 대하여」, 『영남일보』, 1963.7.21.
 _____, 『자기성찰'은 자신부터 - 김재수 씨의 글에 대하여, 『영남일보』, 1963.7.28.
 『대화하는 작품 배상하유작전에서』, 『매일신문』, 1965.5.11.
 구왕삼, 『휴먼'한 작가정신, 배상하유작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6.5.11.

주간지/계간지/월간지

『(사진)〈수녀 수산나〉 배상하, 『자유의 벗 8호』, 1963년, 14.
 『(사진)〈수녀 수산나〉, 고 배상하 작』, 『포토그래피』, 1966년 8월, 11.
 『고 배상하의 작품세계』, 『영상』, 1976년 봄/여름호.

인쇄물/기타

[상장] 경북사진문화연맹, 『배상하 가작 상장』, 1947.8.26.
 [임명장] 김천신문사, 『배상하 기자 임명장』, 1951.1.3.
 [상장] 전국사진가연합회, 『배상하 입선 상장』, 1955.8.26.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울미국공보원 주최, 《한미합동 “한국가족” 사진전》, 미국공보원 화랑, 1956.12.17.-22.
 [전시 팸플릿] 프랑스 《제7회 낭트국제사진살롱》, 1962.2.3.-18.
 [상장]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신인 예술상 사진부분 분과 입선 상장』, 1962.6.24.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전시 팸플릿] 대구사광회 주최, 《고 배상하 유작 사진전》(경북공보관 화랑, 1966.5.5.-13., 부산 미국공보원 화랑, 6.10.-16., 신문회관 화랑, 6.20.-26.)

서선화(徐善華, 1921-2004)

대구사광회.

* 일본 동경사진통신학교(東京寫眞通信學校)에서 사진술 습득.
 1939 중국 개원에서 삼명사장(三明寫場) 개업.
 1947 대구 교동에서 명성사장(明星寫場) 개업.
 1960 대구 동성로에서 명성제2사장 운영.
 1962 프랑스 《제13회 보르도국제사진살롱》: 〈비상〉, 〈모기〉 입선.
 1963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부지부장 역임.
 홍콩 《국제사진살롱》: 〈곡예〉 입선.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자장가〉 입선.
 1964 호주 콘래드 《국제사진살롱》: 〈피라밋〉 입선,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11.15.): 〈시속 100km〉 입선.
 1965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 〈격투〉 특선, 호주 시드니 《국제사진살롱》: 〈시속 100km〉 입선, 프랑스 《낭트국제사진살롱》: 〈회갑〉 입선, 이탈리아 크레모나 《국제사진살롱》: 〈설원〉 입선, 프랑스 《제15회 보르도국제사진살롱》: 〈세가지 형태〉 입선, 문교부 주최,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6.-11.15.): 〈구축〉 입선.
 사진동우회 주최, 동아일보사 주관, 《제1회 동아국제 사진살롱》 운영위원.
 1966 한국사진협회 감사 역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66 8·15경축종합전시회, 미술·건축·사진》(예총화랑, 8.15.-19.) 문교부 주최,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6.-11.16.): 〈반성〉 입선.
 프랑스 《제16회 보르도국제사진살롱》: 〈예지력〉 입선.
 1967-68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부지부장 역임.
 1968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주최, 《작품상》 수상.
 1969-71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역임.
 1974 《제1회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76-78 《제3-5회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1 《제1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1983-87 《제3-7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6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25회 한국사진문화상》

공로상 수상.
 1987 동아일보사 주최, 《동아미술제》 사진부 심사위원.
 동아사진살롱 및 동아미술제 입선자 모임인 사진동우회 부회장 역임.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6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심사위원.
 1989 대구시 주최, 《대구시문화상》 공간예술부문 수상.
 명성웨딩 개업.
 《제9회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91 《제11회 대구사진대전》 운영위원.
 1993-94 《제13-14회 대구사진대전》 운영위원.
 1998 《제18회 대구사진대전》 운영위원.
 1999 『사진인생 60년 세월 - 석천 서선화사진집』(사진예술사, 1999) 출간.
 2004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이해문·서선화 양 씨의 작품 《보루도사진살롱》에 입선』, 『동아일보』, 1963.5.11.
 서선화, 『당선소감 특선』, 『동아일보』, 1965.6.26.
 『대구시문화상 수상』, 『조선일보』, 1989.10.15.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비행〉 서선화 작』, 『포토그래피』, 1966년 8월, 18.
 『(사진)〈반성〉 서선화 작 (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40.
 『(사진계 소식) 한국사진협경북지부』, 『포토그래피』, 1968년 3월, 69.

단행본/논문

서선화, 『사진인생 60년 세월 - 석천 서선화사진집』(사진예술사, 1999).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66 8·15경축 종합전시회, 미술·건축·사진》(예총화랑, 1966.8.15.-19.).

신현국(申鉉國, 1924-1997)

대구오광회, 대구사광회, 경북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협회.

1924 경상북도 선산 출생.
 1955 대구오광회 회장 역임.
 경북사진작가협회 감사 역임.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제1회 어린이 사진공모전》: 〈앗 터졌다〉 특선1석(경북도지사상).
 1957-82 대구매일신문사 사진부 재직.
 1960 프랑스 《국제사진살롱》: 〈여생〉, 〈행상인〉 입선.
 1961 미국 U.S.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폭음에 지친 어린이〉 흑백부문 7등.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1961-62 한국사진협회 회원.
 1962 프랑스 《제7회 낭트국제사진살롱》: 〈중개인〉, 〈노인〉 입선,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신인예술상》(중앙공보관, 5.1.-16.): 〈아빠, 뺨이뺨이〉 특선, 미국 U.S.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입선.
 1963 호주 멜버른 《국제사진살롱》: 〈닭장수〉 입선.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 〈동심〉 특선, 〈우리아기 말랐네〉 입선.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2회 한국사진문화상》 작품상 수상.
 1964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11.15.): 〈생존〉 문교부장관상.
 1965 경상북도 주최, 《경북문화상》, 《수정사진문화상》 수상.
 1965-67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1966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6.-11.16.): 〈평화의 기구〉 특선.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1967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뉴포토클럽 주최, 《창립 10주년 기념 뉴-포토클럽 사진전》(중앙공보관 제1실, 9.6.-11.).
 1968 매일신문사 주최, 《제13회 어린이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1972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관련 자료 소개	
	
1973-77	동아일보사, 동아방송 주최, 《제11-15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
1974	《제1회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대구사광회 회장 역임. 한국사진협회 주최,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전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11.4.-10.).
1976	대구예우회 지도고문 역임.
1977-81	《제4-8회 경상북도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2,85,88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84	《대구직할시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심사위원.
1985	현대칼라 주최, 《제8회 현대사진문화상》 본상 수상.
1991	《제11회 대구사진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
1994	《제14회 대구사진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인생의 목격자, 신현국 사진집』(사진예술사) 출간.
1995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직할시지회 주최, 《제1회 대구사진문화상》 수상.
1997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신현국, 「카메라 첫걸음(상), 기초지식과 촬영요령, 『대구매일신문』, 1959.7.11.

_____, 「카메라 첫걸음(하), 조리개와 필터의 효능과 화면 구성 요령, 『대구매일신문』, 1959.7.18.

「신현국 씨도 입선, 『동아일보』, 1961.7.6.

「특상작품 신현국 씨 (아빠·빠이빠이)」, 『동아일보』, 1962.4.30.

신현국, 「'무서움'이 앞서고 - 특선 <동심> 신현국, 『동아일보』, 1963.10.31.

「수정사진문화상 신현국 씨가 수상, 『동아일보』, 1965.12.25.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 <증개인>, 신현국, 『자유의 벗 8호』, 1963년, 15.

「(사진) <평화의 기구>, 신현국 작 (특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57.

「(사진계 소식) 어린이 사진전(대구매일신문사)」, 『포토그래피』, 1968년 7월, 71.

신현국, 「스트로보 후렛슈의 성능과 장단점, 『카메라예술』, 1969년 3월, 75.

「(사진) 현역작가 걸작선 <동면>, 신현국, 『카메라예술』, 1969년

4월, 20.

단행본/논문

신현국, 『인생의 목격자, 신현국 사진집』(사진예술사, 1994).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전시 팸플릿] 뉴포토클럽 주최, 《창립 10주년 기념 뉴-포토클럽 사진전》(중앙공보관 제1실, 1967.9.6.-11.).

[작품 목록집] 한국사진협회 주최,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전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1974.11.4.-10.).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동아방송 주최, 《제13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상·입선작 전시회》(신문회관 화랑, 1975.6.9.-15.).

안월산(安月山, 본명 안성호(安城虎), 1909-1978)

대구아마추어사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대구사우회(1954), 경북사진작가협회, 사월회.

1909	대구 출생.
1931	동경전기전문학원 졸업.
1930s	대구아마추어사우회 회원.
1942	《방도연맹사진전》 특선
1945	경북사진문화연맹 최고위원 역임.
1946	경북사진문화동맹 주최, 《건국사진공모전》: <일심> 제1부 준특선.
1947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 <춘경> 특선3석 외 다수 입선.
1948	국제보도연맹, 미공보원 주최, 《제1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미국문화연구소, 11.5.-20.): <쟁기> 특선, 영남일보사 주최, 《향토예술사진전》: <유영> 준특선, <아침> 외 1점 입선, <안개 낀 아침> 가작,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2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서울 동화백화점 화랑, 12.22.-1949.1.5., 대구 미국문화연구소, 1949.2.15.-25.): <기와굴의 아침> 특선1석.
1949	경북상공장려관 주최, 《경북산업사진전》(대구 상공장려관, 1.21.-26.): 입선, 서울사진재료상조합, 조선사진문화사 주최, 《전국종합사진대현상모집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8.16.-22.): <등교> 특선1석, 국제보도연맹, 미공보원 주최, 《제2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미국문화연구소, 11.9-15.): <직녀> 준특선,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3회 전국예술사진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12.21.-28.): <질삼> 입선, 《전국인상사진전》: <세파> 준특선, 《제3회 한국예술사진전》: <추수> 준특선 외 1점 입선.
*	《오인동인전》(미국공보원).
1954	대구사우회 결성, 회장 역임.
1955	경북사진작가협회 대의원 역임.
1956	경북사진작가연맹 위원장 역임.
1959	경상북도 주최, 《경북문화상》 수상.
1962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초대회장 역임.
196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 대구사우회 주관,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 심사위원회 위원장, 국제사진살롱위원회 부위원장.
1963-64	동아일보사 주최,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심사

	위원.
1965	월산예술학원 설립.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4회 신인예술상》 심사위원. 경북사진협회 주최, 《제1회 전국 대학생 사진 콘테스트전》 심사위원.
1966	공보부 주최, 《제5회 신인예술상》 심사위원.
1966-72	동아일보사 주최, 《제4-10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
1967	《대구 사진인동인전》(중앙공보관, 1.4.-9.).
1968	대구사진연구회 초대회장 역임. 사월회(1974년 대구사진연구회로 개칭) 초대회장 역임. 매일신문사 주최, 《제13회 어린이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1969	월광회 명예회장 역임.
1971-73	문화공보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 사진 분과위원,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1974-76	문화공보부 주최, 《제23-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역임.
1978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등교> - 다부 특선1석 안월산 씨 사[진](대구), 『동아일보』, 1949.7.9.

안월산, 「창작의욕이 부족, 어린이사진전 심사 후감, 『대구매일신문』, 1957.4.26.

_____, 「제1회 사진콘테스트 심사를 마치고, 『대구매일신문』, 1958.2.27.

_____, 「본사 제5회 어린이사진전, 지방작가의 전진 중견의 추보 섭섭한 일, 『대구매일신문』, 1959.4.28.

_____, 「심사소감, 『동아일보』, 1966.6.7.

_____, 「다양성 없는 소재선정, 『동아일보』, 1969.6.10.

_____, 「풍성한 양에 비해 수준은 높지 않아, 『동아일보』, 1970.6.4.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 <기와굴의 아침> - 안월산, 『사진문화』, 1949년 2월, 2.

「(사진) 제2회 전국종합사진 특선된 작품, 『사진문화』, 1949년 8월, 20-29.

주요 작가 연보

「(사진계 소식) 어린이 사진전(대구매일신문사)」, 『포토그래피』, 1968년 7월, 71.

단행본/논문

『안월산유작사진집』(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부, 1980).

이정강(李正綱, 1921-1990)

대구광화연구회, 대구사광회.

- 1921 경상북도 풍기 출생.
- 1953 대구광화연구회 주최, 《창립회원전》(대구 USIS).
- 1962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신인예술상》(중앙공보관, 5.1.-16.): 입선,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 1963 미국 U.S.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환상곡〉 4등, 〈석양〉 4등, 〈귀로〉 6등, 공보부 주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주관, 《제2회 신인예술상》(중앙공보관, 3.19.-25.): 〈소망〉 특상, 스페인 《제6회 국제 사진살롱》: 〈모델〉 특상.
- 1964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11.15.): 〈여정(女情)〉 입선, 〈누드〉 특선, 일본 후지사진필름회사 주최, 《후지아마추어사진 콘테스트》: 〈화제B〉 입선, 한국영업사진가협회, 국일 사진화공 주식회사 주최, 《인상사진콘테스트》: 〈두 노인〉 특선,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제24회 국제사진살롱》: 입선.
- 1965 프랑스 《제9회 낭트국제사진살롱》: 〈누드〉 외 1점 입선.
- 1966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16.-11.16.): 〈망화(網花)〉, 〈조국〉 입선. 《제2회 신사회 발표전》(경북공보관 화랑, 9.3.-8.).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67 8.15경축 종합전시회(미술, 사진)》(예총화랑, 8.15.-21.). 《제2회 전국고등학생사진전》 심사위원.
- 1967-76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 1968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중앙공보관, 1.22.-2.10.).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COLOR 작품전》(국립공보관, 9.7-15.).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경북공미술관, 10.5.-11.5.): 〈좁은 문〉 특선.
- 1969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10.20.-11.20.): 〈장고의 리듬〉 특선, 〈5월의 양광〉 입선.
- 1971 문화공보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 〈공간〉 특선, 〈컴포지션〉 입선.

- 1972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 〈석양〉 문화공보부장관상, 〈문고리〉 입선.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주최, 《서울초대사진작가작품전》 초대작가. 삼오양행, 한국일보 주최, 《제3회 3.5 촬영대회 입선 사진작품전》 심사위원.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1회 한국사진문화상》 작품상 수상.
- 1973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0회 전국신록촬영대회 작품전》 심사위원.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 추천작가.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주최 《제16회 회원작품전-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초대작가.
- 1974 문화공보부 주최,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한국사진협회 주최,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 전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11. 4.-1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라벌예술 초급대학 주최, 《21회 종합예술축전 미술전람회》 사진부문 지도교수.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9회 전국학생사진공모작품전》, 《제2회 전국일반 사진작품 공모전 / 제10회 전국 학생 사진작품 공모전》 일반부 심사위원.
- 1975-77 《제24-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 1977-80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역임.
- 1978-79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 198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사진 위원.
- 1981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태고의 장〉 초대작가상. 대한사진작가협회 주최, 《제1회 국제사진전》 심사위원. 《회갑기념전》(예총화랑, 11.26.-30.).
- 1981-83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역임.
- 1982 《임응식 회고전》 운영위원.
- 1983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 1940-1980》 전시작품 선정위원.
- 1984-89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역임.
- 1987 현대칼라 주최, 《제10회 현대사진문화상》 본상 수상.
- 1990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 김태한, 「결허된 인간성, 이정강 《뽀오트레이드》 전을 보고, 『대구일보』, 1960.10.4.
- 「사회장에 이정강 씨 사진 작가협 제20차 정총 박기동 씨 등에 문화상 시상, 『매일경제』, 1981.2.24.
- 「이정강 협회이사장 회갑기념전을 열어, 『매일경제』, 1981.11.24.
- 「사진협회 이정강 이사장 대한민국 사진전 준비, 『경향신문』, 1982.2.16.
- 「현대사진문화상 시상, 『동아일보』, 1987.10.29.
- 「문예인 지원자 선정 문학 등 8개 분야서 39명, 『경향신문』, 1990.6.25.

주간지/계간지/월간지

- 「(사진) 〈풍년제〉 이정강 작, 『포토그래피』, 1966년 8월, 45.
- 「(사진) 〈조국〉 이정강 작 (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35.
- 「(사진) 〈조화〉 이정강 작 (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46.
- 「(사진계 소식) 제2회 전국고등학생사진전, 『포토그래피』, 1967년 11-12월, 91.
- 이정강, 「누-드 씨리-즈, 『포토그래피』, 1968년 1-2월, 18.
- 「(사진) 우리는 친구, 『월간조선』, 1982년 8월.
- 이정강,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가는 길, 『월간사진』, 1982년 8월, 25.

인쇄물/기타

-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 [전시 팸플릿]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67 8.15경축 종합전시회(미술, 사진)》(예총화랑, 1967.8.15.-21.).
- [전시 팸플릿] 중앙공보관 주최, 《중앙미술전》(중앙공보관, 1968.1.22.-2.10.).
- [전시 팸플릿]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COLOR 작품전》(국립공보관, 1968.9.7.-15.).
-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협회,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 전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안국동), 1974.11.4.-10.)
-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 1940-1980》(국립현대미술관, 1983.5.16.-25.).

임윤창(林允昌)

대구아마추어사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대구사연회, 대구사우회(1947), 경북사진작가연맹.

1945	경북사진문화연맹 최고위원 역임.
1948	영남일보사 주최, 《전선향토현상사진전》: 〈황혼의 서정〉준특선, 〈날이 밝으려다〉외 2점 입선, 〈황혼〉가작,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2회 전조선예술사진전람회》: 〈효명〉특선, 〈날이 밝으려다〉준특선, 〈가라해 치면〉준특선.
1949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부산사진재료상조합 후원,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제공, 《제1회 전국어린이사진전람회》(부산 미국공보원, 8.1.-5.): 〈이리오너라〉최우수작, 〈어서가자〉가작, 서울사진재료상조합, 조선사진문화사 주최, 《제1회 전국종합사진전》(동화화랑, 8.3.-9.): 입선.
*	《오인동인전》(미국공보원).
1951	사진동인회 주최, 《사진동인전》(대도회다방, 12.21.-27.).
1956	경북사진작가연맹 부위원장 역임.
1958	경북학생산악연맹 주최, 대구매일신문사, 경북사진작가연맹, 한국산악회 경북지부 후원, 《임윤창 산악사진전》(대구 USIS, 3.29.-31.).

관련 자료

일간지

「《전선향토사진》 특선에 대구 홍사영 씨», 『부일신문』, 1948.11.14.

「지방출품우수 제2회 예사전」, 『동아일보』, 1948.12.12.

「어린이모습사태」, 『경향신문』, 1949.5.5.

김동사, 「문화, 사진과 사진인, 하」, 『영남일보』, 1949.6.5.

임윤창, 「사단의 정화」, 『대구매일신문』, 1955.11.6.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임윤창, 「(사진) 〈효명〉, 임윤창」, 『사진문화』, 1949년 2월, 3.
_____, 「(사진) 국산품사진전입선작품 〈토산품〉, 임윤창」, 『사진문화』, 1949년 11월, 8.

정유, 「제3회 전국예술사진전을 보고」, 『사진문화』, 1950년 4월, 12-13.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제1회 전국 「어린이」 사진전람회》(부산미국공보원, 1949.8.1.-5.).

[전시 팸플릿] 사진동우회 주최, 《사진동인전》(대도회다방, 1951.12.21.-27.).

[전시 팸플릿] 경북학생산악연맹 주최, 《임윤창 산악사진전》(대구 USIS, 1958.3.29.-31.).

장병진(張炳眞)

대구아마추어사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1934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창립 회원.
1937	전조선사진연맹, 경성일보사 주최, 《제4회 조선사진살롱》(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19.-23.): 〈가을〉가작.
1938	《제5회 조선사진살롱》(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10.-14.):〈가을 하늘〉, 〈가을 빛〉입선.
1939	《제6회 조선사진살롱》(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15.-19.): 〈가을 전원〉, 〈여름 구름〉, 〈귀로〉입선. 조선일보사 주최, 《제3회 남량사진현상모집》: 〈초하〉가작.
1946	경북사진문화연맹 주최, 《건국사진공모전》(대구 공회당화랑, 2.24.-28.): 제1부 준특선.
1947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7.15.-18.): 〈능가〉입선.
1948	《제2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12.22.-1949.1.5.): 〈독서〉, 〈조력〉준특선.
1949	경북상공장려관 주최, 《전국산업사진전람회》(대구상공장려관 2층, 1.20.-26.): 준특선1석.

관련 자료
일간지
「제3회 현상사진 가작 〈초하〉」, 『조선일보』, 1939.7.29.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 전국산업사진전 특선작 - 대구 홍사영, 장병진, 서태석」, 『사진문화』, 1949년 4월, 13-15.

조상규(趙祥奎)

대구아마추어사우회, 대구사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1934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창립 회원.
1940	전조선사진연맹, 경성일보사 주최,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20.-24.): 1점 입선.
*	아루스사장 운영.
1945	경북사진문화연맹 가입.
1946	대구사연회 부회장 역임.
1947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7.15-18.): 〈고드름〉, 〈신록의 고적〉, 〈덧줄〉입선.
1949	외무부 정보국문화과 주최, 《관광사진》: 입선.
1951	사진동인회 주최, 《사진동인전》(부산 대도회다방, 12.21.-27.): 〈바다의 아침〉, 〈망월사 아침〉출품.
1952	대한사진예술연구회,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합동예술사진전》(미화당화랑, 6.5.-9.): 〈석등〉, 〈덧줄〉출품.
1954	동방사진문화사, 동방사진뉴-스사 주최, 《제1회 전국예술사진전람회》(화신백화점 5층 화랑, 8.5.-9.): 〈쟁줄〉제1부 최우수작(부통령상).
1968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중앙공보관, 1.22.-2.10.).

관련 자료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조상규, 「(사진) 〈출범〉 조상규」, 『사진문화』, 1948년 7월, 5.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사진동우회 주최 《사진동인전》(대도회다방, 1951.12.21.-27.).
[전시 팸플릿] 대구사진예술연구회,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합동예술사진전》(미화당화랑, 1952.6.5.-9.).
[전시 팸플릿] 동방사진문화사, 동방사진뉴-스사 주최, 《제1회 전국 예술사진전람회》(화신백화점 5층 화랑, 1954.8.5.-9.).
[전시 팸플릿]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중앙공보관, 1968.1.22.-2.10.).

조상민(趙相民, 1925-1966)

대구사우회, 경북사진협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7.26.-8.1.).
《제9회 대구사우회 작품전)(경북공보관, 8.1.-6.).
작고.

관련 자료

일간지

조상민, 「향토문화계의 결산 1961년도」, 『매일신문』, 1961.12.26.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회화와 사진전)(USIS, 1961.3.14.-17.).

[전시 팸플릿] 신사실-영광크럽 주최, 《제2회 이미지전 - 회화와 사진)(USIS, 1962.1.13.-16.).

[전시 팸플릿]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962.12.24.-30.).

[전시 팸플릿] 《조상민, 도주룡 유작전)(경북공보관 화랑, 1968.6.26.-7.1.).

- 1925 대구 출생.
- 1955 전국사진가연합회 주최, 《제1회 공모사진전》:〈갑쟁이〉제2부 준특선.
- 1956 전국사진가연합회 주최, 《제1회 어린이사진공모전》:〈응응알았지〉특선.
- 1957 경북문화예술인연합회 사진부문 간사 역임.
- 1961 베트남 《제2회 국제사진살롱》:〈강에서 노는 소년〉입선, 홍콩 《국제사진살롱》:〈벽〉입선, 호주 시드니 《국제사진살롱》:〈동희〉입선, 호주 멜버른 《국제사진살롱》:〈가을의 무드〉동상.
《회화와 사진전)(USIS, 3.14.-17.).
- 1962 호주 빅토리아 《제14회 국제사진살롱》:〈포-트레이트〉,〈산책〉입선, 호주 애들레이드 《국제사진살롱》:〈하동 A, B〉,〈청조〉,〈벽〉,〈하동〉입선.
신사실-영광크럽 주최, 《제2회 이미지전 - 회화와 사진)(USIS, 1.13.-16.).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중앙공보관, 12.24.-30.).
경상북도 주최, 《경북문화상》 수상.
- 1962-65 경북사진협회 부지부장 역임.
- 196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 대구사우회 주관,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심사위원, 국제사진살롱위원회 위원.
호주 멜버른 《국제사진살롱》:〈회상〉입선.
미국 U.S. 카메라 주최, 《U.S. 카메라콘테스트》: 흑백부문 4등.
- 1964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 역임.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3회 초대작가 사진전》(중앙공보관, 5.21.-27.).
- 1965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1회 창협전》(중앙공보관, 1.11.-17.).
대구 미국공보원 초청, 《신춘 창작사진전》(대구 미국공보원, 2.22.-24.).
경북사진협회 주최, 《제1회 전국 대학생 사진콘테스트전》 심사위원.
경북사진협회 지부장 역임.
- 1966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2회 한국창작사진협회

최계복(崔季福, 1909-2002)

대구사우회(1934), 대구아마추어사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대구사우회(1947), 한국사진작가단.

- 1909 경상북도 출생.
- 1925 대구 교남학교(현 대륜학교)에서 수학.
일본 교토 영남사진기점에 입사, 사진술 습득.
- 1934 귀국 후 대구 종로 1가에 최계복사진기점(1945년 대구사진관으로 개칭) 개점.
대구아마추어사우회 결성.
전조선사진연맹 주최, 《조선사정해외선전사진모집전》: 입상.
- 1936 《대구사진공모전》대구부윤 컵:〈춘풍〉입선, 《봄을 그리다 공모전》:〈봄을 이야기하다〉가작, 후지필름 주최, 현상모집:〈집으로 돌아가는 길〉5등 입선, 《대구 부근 하이킹 코스선정 기념 사진전》:〈안압지의 새싹〉준특선, 대구 달서양화점 주최, 《현상사진공모전》:〈양화미(洋靴美)〉입선, 《대구 가을 촬영회》:〈안개 낀 도선장〉준특선1석, 《추기 조선 색 현상사진공모》:〈널뛰기〉가작, 《조선색 현상사진모집》:〈씨름 대회〉가작, 《대구 오리엔탈 현상사진공모전》:〈널뛰기〉준특선, 〈즐거운 공휴일〉입선, 대구사우회 주최, 《월례회》다수 특선 및 입선.
- 1937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춘기 사진대회》:〈사두(社頭)〉준특선, 《조선사정선전사진 현상공모전》: 제1부 〈해녀의 행진〉3등, 제8부 〈교내 작업〉, 제9부 〈동정을 구하며〉, 제10부 〈분황사〉입선, 전관서사진연맹 조선지부 공모전:〈봄의 여성〉입선, 일본 후지필름 주최, 《조선, 만주, 구주, 중국 대항 사진공모전》:〈초하〉입상, 부산일보사 주최, 《상공광고사진공모전》: 입선4석,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예술사진공모전》:〈모래언덕〉특선1석,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남량사진현상모집》:〈한가한 어부〉3등, 〈강안 풍경〉가작, 전조선사진연맹, 경성일보사 주최, 《제4회 조선사진살롱》(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19.-23.):〈뱃사공을 기다리다〉,〈말린 물고기〉가작.
- 1938 조선민보사 주최 칙제:〈신사의 아침〉준특선2석, 《대구 하이킹 코스 선정 기념 현상 사진공모전》:〈산정의 아침〉특선2석, 《제5회 조선사진살롱》:〈나루터에서〉,〈늦가을의 농가〉,〈늦가을 아침〉입선, 《제2회 남

- 량사진현상모집》:〈여름 교외〉1등, 〈해녀〉가작, 일본 사진신보사 주최, 월례 사진공모: 제2부 〈수영복의 여인〉입선.
- 1939 전조선사진연맹 후원, 《명승고적사진현상모집》:〈경주 첨성대〉1등, 《제3회 남량사진현상모집》:〈여름 구상〉1등, 〈여름 바다는 부른다〉가작, 《제6회 조선 사진살롱》(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 11.15.-19.):〈저녁 식사〉입선, 일본 사진신보사 주최 월례 사진공모:〈대합실〉입선.
- 1940 《제4회 남량사진현상모집》:〈향토의 자랑〉우수작, 일본 사진신보사 주최, 월례 사진공모:〈채빙대〉입선, 일본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 사진전:〈고적의 향기〉준특선, 전조선사진연맹 주최, 사진공모전:〈빛나는 조선박람회〉특선1석.
- 1941 조선여행사 주최 공모전:〈저물어가는 마을〉1등.
- 1942 조선체육진흥회 등행단 주관, 조선산악회 백두산 등정 사진기록 대원으로 참가.
- 1945 경북사진문화연맹 조직, 위원장 역임.
- 1946 한국산악회 경북지부 결성, 지부장 역임.
- 1947 대구사우회 결성.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7.15.-18.):〈인고〉,〈신라의 예술〉,〈청초한 암자〉입선.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 사진-보도반 참여.
- * 《대구합동사진전》(대구 공회당).
- * 《울릉도-독도 탐사 종합답사사진전》(동화백화점 화랑).
- 1948 영남일보사 주최, 《향토예술사진전》, 서울사진재료상조합, 조선사진문화사 주최, 문교부, 공보처, 동아일보사,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전국종합사진대현상모집전람회》심사위원.
- 1949 《예술사진동인전》(서울 충무로1가 대원화랑, 11.21.-26.).
- 1950 예술사진동인회, 재부양화가일동 주최, 《양화와 예술사진 합동전》(부산 미국공보원, 1.21.-26.).
6.25전쟁 발발, 국방부 정훈국 보도과 종군사진가로 종군.
- * 《오인동인전》(미국공보원).
- 1952 한국사진예술학회 설립.
- 1954 대구사우회 고문.
동방사진문화사 주최, 《건국예술사진현상모집》심사위원.

신문》. 1957.4.26.

구왕삼. 「라이프지 발전의 비밀 - “진실을 대중에게”의 사시」. 『대구매일신문』. 1957.6.15.

「현대사진계의 동향(상) - 사진적 시각상의 8종류」. 『대구매일신문』. 1957.8.8.

「현대사진계의 동향(중) - 사이비 리어리즘에서의 반작용」. 『대구매일신문』. 1957.8.9.

「현대사진계의 동향(하) - 진정한 루포르타주 사진」. 『대구매일신문』. 1957.8.10.

「「부렛슨」과 영국」. 『대구매일신문』. 1957.9.6.

「해외사진계의 화제, 나다르 상 작가 크라인」. 『대구매일신문』. 1957.9.6.

「김진욱 씨 사진전」. 『동아일보』. 1957.10.16.

구왕삼. 「사상성의 결여, 제2회 김진욱사진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7.10.18.

_____. 「그릇된 사단의식, 유평과 당파를 구별하라」. 『대구매일신문』. 1957.12.3.

「문화계 소식」. 『경향신문』. 1957.12.11.

구왕삼. 「조화된 내면묘사와 조형미, 박영달사진전을 보고」. 『대구일보』. 1957.12.12.

이근우. 「카메라의 사고」, 박영달사진전이 시사하는 것」. 『대구매일신문』. 1957.12.16.

구왕삼. 「경북지역문화 1년의 회고 1957, 모색에의 진통 개인전의 전진과 집단전의 후퇴」. 『대구매일신문』. 1957.12.22.

_____. 「국제싸롱의 역사」. 『대구매일신문』. 1957.12.29.

「국제싸롱에 입선」. 『조선일보』. 1958.1.21.

「이해문 박영달 양 씨 입선 국제사진살롱에」. 『경향신문』. 1958.1.24.

「사진은 〈풍선〉」. 『조선일보』. 1958.2.2.

안월산. 「제1회 사진콘테스트 심사를 마치고」. 『대구매일신문』. 1958.2.27.

구왕삼. 「사진의 독창성과 예술성」. 『동아일보』. 1958.3.15.

「사진의 조형과 주관(중), (하)」, 『대구매일신문』. 1958.4.11.-13.

「5월의 새싹」. 『동아일보』. 1958.5.11.

정점식. 「사진예술과 ‘리얼’의 문제 - 어린이사진전을 전후해서 느낀 것」. 『대구매일신문』. 1958.5.17.

「사단십년의 자취」. 『조선일보』. 1958.8.19.

김태한. 「논조 이전의 빈곤, 구왕삼 씨의 소론을 다시 박함」. 『대구일보』. 1958.10.25.

구왕삼. 「불안과 저미의 대구사단, 제10회 사협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8.11.11.

김태한. 「옳은 사진작품 평을 위하여, 구왕삼 씨의 ‘불안과 저미의 대구사단」을 읽고」. 『대구일보』. 1958.11.14.

「포오즈와 의상」. 『대구매일신문』. 1958.11.16.

구왕삼. 「빈곤한 논조(상), (중), (하) 김태한 씨의 사진평에 답함」. 『대구일보』. 1958.11.17.-19.

_____. 「사진의 ‘고전’ 문제(상), (하) 김태한 씨의 논박에 다시 답하여」. 『대구일보』. 1958.11.28.-29.

김태한. 「고전과 역사적 가치, 구왕삼 씨의 ‘사진의 고전문제」를 보고」. 『대구일보』. 1958.12.4.

구왕삼. 「고전과 역사적 가치는 이질, 사진 예술의 이해를 위하여」. 『대구일보』. 1958.12.8.

_____. 「권태기의 고민 - 정신의 호수는 고갈상태」. 『대구매일신문』. 1958.12.16.

임응식. 「고요한 분위기」. 『조선일보』. 1958.12.16.

박영달. 「대구사단에 제언함(상), (하) - 작가와 비평가의 상용성을 밝히며」. 『대구일보』. 1959.1.6.-7.

안월산. 「본사 제5회 어린이사진전, 지방작가의 전진 중견의 후보 섭섭한 일」. 『대구매일신문』. 1959.4.28.

손동진. 「본사 제5회 어린이 사진전, "도리밍"을 잘했으면」. 『대구매일신문』. 1959.4.29.

김성도. 「본사 제5회 어린이 사진전, 달밤의 동심을 - 문외환의 변」. 『대구매일신문』. 1959.4.30.

신현국. 「카메라 첫걸음(상), 기초지식과 촬영요령」. 『대구매일신문』. 1959.7.11.

_____. 「카메라 첫걸음(하), 조리개와 필터의 효능과 화면 구성 요령」. 『대구매일신문』. 1959.7.18.

「(계시) 등 4점 입선」. 『조선일보』. 1959.9.18.

「(아트리에) 강영호 작」. 『조선일보』. 1959.9.18.

구왕삼. 「‘사진’은 있어도 ‘작품’은 없었다」. 『대구매일신문』. 1959.12.18.

강영호. 「바른 인식 뚜렷한 논리를, 구왕삼 씨의 ‘사단총평」을 읽고」. 『대구매일신문』. 1959.12.29.

박영달. 「감수성의 갱신, 새로움을 찾는 사진가의 자세(상), (하)」. 『대구일보』. 1960.1.6.-7.

김태한. 「의욕적인 직장전 - 제3회 전남사진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60.1.18.

「사진과 회화의 교류(1)-(완)」. 『대구매일신문』. 1960.2.24.-3.8.

「사진작품 초대전시회」. 『조선일보』. 1960.4.8.

「5개 화랑 접한 사진전 - 외국당선작전시회 등 성황」. 『대구매일신문』. 1960.4.13.

김진욱. 「높아진 착안 수준, ‘제6회 어린이사진전 입선작 평」.

『대구매일신문』. 1960.5.3.

구왕삼. 「6.25 10년㉔ 사진 - 활기 띤 해외진출」. 『대구매일신문』. 1960.6.30.

김태한. 「결허된 인간성, 이정강 《뽀오트레이드》전을 보고」. 『대구일보』. 1960.10.4.

「문화계의 향토인(완) - 보도사진」. 『매일신문』. 1960.10.13.

강신울. 「혼잡해버린 비평정신 - 김태한 씨의 「결허된 인간성」을 읽고」. 『매일신문』. 1960.11.2.

김태한. 「사진사의 시점과 예술 - 혼잡해버린 비평정신을 읽고」. 『매일신문』. 1960.11.10.

강신울. 「사시의 생리, 김태한 씨의 ‘사진사의 관점과 예술」에 답함」. 『매일신문』. 1960.11.21.

구왕삼. 「진통에서 새 발전으로 - 활기 띤 해외진출의 해」. 『매일신문』. 1960.12.19.

「향토사단의 경사 - 제21회 일본 조일국제살롱에 김진욱 · 이정출 양 씨 작품 입상」. 『매일신문』. 1961.1.4.

구왕삼. 「향토사진의 방향과 활동 - 국제 ‘싸롱’의 진출을 중심으로」. 『매일신문』. 1961.3.2.

김재수. 「비평과 지도이념 - 구 씨의 ‘향토사진의 방향과 활동」을 읽고」. 『매일신문』. 1961.3.7.

최계복. 「사진 부문도 《국전》에 참가하여야한다」. 『한국일보』. 1961.3.14.

구왕삼. 「생명적인 사진(상)-(완)」. 『영남일보』. 1961.5.6.-10.

김재수. 「구상과 비구상 사진소고(상), (하) - 추상과 사실주의 사진을 중심으로」. 『대구일보』. 1961.6.6.-7.

「김진욱, 김영민, 양 씨 당선 - 향토사단 초유의 영예 61년도 ‘U.S.카메라콘테스트」에」. 『매일신문』. 1961.6.26.

「우리나라 사진예술」. 『동아일보』. 1961.6.30.

「신현국 씨도 입선」. 『동아일보』. 1961.7.6.

구왕삼. 「사진조형의 시각음악 - ‘살롱 · 아루스’의 대구이동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1.11.14.

강대운. 「사진에서 본 시적감동 - 분마와 목장의 시각」. 『매일신문』. 1961.11.25.

김열수. 「사진의 위치 높여야 - 재구(在邱) 선배들에 보내는 글」. 『매일신문』. 1961.11.25.

김태한. 「1961년의 회고 - 사단, 사상누각으로부터 반석위에 구축」. 『영남일보』. 1961.12.15.

조상만. 「향토문화계의 결산 1961년도」. 『매일신문』. 1961.12.26.

「우리 작품 7점이 입선」. 『동아일보』. 1961.12.26.

「〈강에서 노는 소년〉 등 6점 국제사진전에 우리작가입선」. 『동아

일보』. 1962.1.14.

「우리작품 6점 입선 월남 국제사진전에」. 『경향신문』. 1962.1.20.

「한국작품 6점이 입선」. 『조선일보』. 1962.1.25.

「우리 작품 9점이 입선」. 『동아일보』. 1962.2.19.

「4개 부문 심사위원 내정」. 『조선일보』. 1962.3.28.

「특상작품 신현국 씨 (아빠·빠이빠이)」. 『동아일보』. 1962.4.30.

「신인예술상경연 오늘부터 사진부문 전시」. 『경향신문』. 1962.5.1.

「경북문화상 시상」. 『동아일보』. 1962.6.20.

구왕삼. 「지성의 총명을 잃지 말자 - 경북사단 단합의 조성을 위해」. 『매일신문』. 1962.7.1.

김태한. 「상반기 경북문화의 자취 ‘사단, 갈등과 의욕의 쌍곡선」. 『매일신문』. 1962.7.20.

구왕삼. 「비평의 ‘모랄’ 백해무익한 인신공격을 삼가하자」. 『매일신문』. 1962.8.10.

박정봉. 「과잉한 법정의식, 구씨의 비판 ‘모랄’에 이견있다」. 『매일신문』. 1962.8.28.

구왕삼. 「허구성의 논쟁, 박정봉 씨에 답함」. 『매일신문』. 1962.8.31.

「성장한 세계로의 출진」. 『경향신문』. 1962.12.25.

「국제사진 ‘살롱」. 『경향신문』. 1963.1.8.

「김갑연 작 (갓 쓴 노인)」. 『동아일보』. 1963.2.22.

「『조일』 국제사진살롱에 우리작품 5점 입선」. 『동아일보』. 1963.3.11.

「향향 국제『살롱』에 한국 작품 10점 입선」. 『동아일보』. 1963.3.15.

「제2회 신인예술사진상 결정 특상에 이정강 작 (소망)」. 『동아일보』. 1963.3.16.

「외면한 신인예술상」. 『경향신문』. 1963.3.18.

「최고은상엔 (휴식)(김두순 작) 멜보른사진전에 10점 입선」. 『동아일보』. 1963.3.19.

「신인예술상 사진부 수상작발표」. 『경향신문』. 1963.3.20.

「신인예술상 수상자결정」. 『경향신문』. 1963.4.12.

「입상자 수상식 성대」. 『조선일보』. 1963.4.21.

「제2회 신인예술상 시상」. 『동아일보』. 1963.4.22.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3.5.1.

「이해문 · 서선화 양 씨의 작품 ‘보루도사진살롱」에 입선」. 『동아일보』. 1963.5.11.

「대구 전 끝내고 ‘서울 전」. 『경향신문』. 1963.5.21.

「세계의 각광받은 ‘사실언어」. 『동아일보』. 1963.6.27.

「늘어나는 ‘영예’」, 『동아일보』, 1963.7.2.
 배상하. 「뽀 맞아야 할 ‘기성’ ‘장미사광회’ 회원에 드림」, 『영남일보』, 1963.7.10.
 김재수. 「사진의 보편화와 예술성 - B 씨의 「뽀 맞아야 할 기성」을 보고」, 『영남일보』, 1963.7.13.
 배상하. 「혈뜯기 위한 상투적 용어 「사진의 보편성과 예술성에 답하여」」, 『영남일보』, 1963.7.21.
 김재수. 「비평보다는 자기성찰을㉠, ㉡ - 「혈뜯기 위한 상투적 용어」에 대하여」, 『영남일보』, 1963.7.24.-25.
 김재수. 「비평보다는 자기성찰을 - 「혈뜯기 위한 상투적 용어」에 대하여」, 『영남일보』, 1963.7.26.
 배상하. 「자기성찰’은 자신부터 - 김재수 씨의 글에 대하여」, 『영남일보』, 1963.7.28.
 이고정. 「자기성찰의 논쟁」, 『영남일보』, 1963.7.31.
 김재수. 「비평과 비방과」, 『영남일보』, 1963.8.1.
 구왕삼. 「심사소감 한국사진의 문제점」, 『동아일보』, 1963.10.29.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3.10.29.
 「영예의 입상작품」, 『동아일보』, 1963.10.29.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자 명단 총 87명」, 『동아일보』, 1963.10.29.
 신현국. 「'무서움'이 앞서고 - 특선 <동심> 신현국」, 『동아일보』, 1963.10.31.
 김재수. 「개성의 결여와 혼돈, '싸롱아르스' 사진전 후감」, 『영남일보』, 1963.11.30.
 「스페인 국제 『살롱』에도 우리 사진작품 6점 입선」, 『동아일보』, 1963.12.12.
 「선상생(善相生) 씨 3등 입상 5 씨 입선」, 『동아일보』, 1964.1.9.
 「우리작품 3점 입선」, 『동아일보』, 1964.1.20.
 「세계살롱에 입선한 사진작품」, 『동아일보』, 1964.1.25.
 「한국에서도 12점 입선 중국의 국제사진『살롱』」, 『동아일보』, 1964.4.27.
 구왕삼. 「광복 20년의 문화계 지표㉠ 사단, 전환기에 선 사진의 자세 - 사진의 <국전> 참가를 계기로」, 『매일신문』, 1964.8.27.
 「「한국창작사진협회」 발족」, 『조선일보』, 1964.9.2.
 「세 사진작가 수상을 거부, 심사위 구성에 불만」, 『조선일보』, 1964.10.15.
 「조일사진 「살롱」 한국서 5점 입선」, 『동아일보』, 1965.1.7.
 「일국제사진살롱 한국서 8점 입선」, 『동아일보』, 1965.2.9.

「미서 최계복사진전」, 『동아일보』, 1965.3.4.
 「최계복 씨 사진전」, 『경향신문』, 1965.3.8.
 「'뉴욕'서 열린 최계복 사진 개인전」, 『동아일보』, 1965.3.27.
 「대화하는 작품 배상하유작전에서」, 『매일신문』, 1965.5.11.
 「불[란서] 낭뜨사진살롱에 한국작가 5명 입선」, 『동아일보』, 1965.5.25.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5.6.21.
 구왕삼. 「심사소감 주관의 투영이 없이」, 『동아일보』, 1965.6.26.
 서선화. 「당선소감 특선」, 『동아일보』, 1965.6.26.
 「한국국제사진 『살롱』 위원명단」, 『조선일보』, 1965.11.6.
 「수정사진문화상 신현국 씨가 수상」, 『동아일보』, 1965.12.25.
 구왕삼. 「퇴색된 구작전, 신춘창작사진전의 인상」, 『매일신문』, 1966.1.28.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결정 동아일보 사진동우회」, 『동아일보』, 1966.2.8.
 이창원. 「아쉬운 평론가적 자세, 구왕삼 씨의 사진평을 읽고」, 『매일신문』, 1966.2.16.
 구왕삼. 「'휴면'한 작가정신, 배상하유작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6.5.11.
 안월산. 「심사소감」, 『동아일보』, 1966.6.7.
 「렌즈의 향연 영예의 초점 제4회 동아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동아일보』, 1966.6.7.
 「김영민 씨 사진개인전」, 『동아일보』, 1966.9.10.
 「김영민사진전 축하파티」, 『마산일보』, 1966.9.18.
 「제15회 국선입선작 발표」, 『경향신문』, 1966.10.7.
 「국전론」, 『조선일보』, 1966.10.18.
 「대구 사진인동인전」, 『경향신문』, 1967.1.7.
 「렌즈가 거둔 결정 영광의 파노라마」, 『동아일보』, 1967.6.15.
 김태한. 「문제의식의 결핍, 대구사우회 10회전을 보고」, 『매일신문』, 1967.6.15.
 임응식. 「뚜렷한 개성과 감정의 언어, 《제10회 대구사우회전》 평」, 『동아일보』, 1967.8.26.
 「특선에 구자현 · 강상규 씨」, 『동아일보』, 1967.11.14.
 「무지개칼라사진전」, 『동아일보』, 1967.11.25.
 「제3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결정」, 『동아일보』, 1968.2.22.
 안월산. 「다양성 없는 소재선정」, 『동아일보』, 1969.6.10.
 「다양한 앵글 생활의 영상」, 『동아일보』, 1969.6.10.
 김재수. 「광복 이후의 대구사단」, 『영남일보』, 1969.8.20.
1970-1980년대
 안월산. 「풍성한양에 비해 수준은 높지 않아」, 『동아일보』,

1970.6.4.
 「건축 <민족통일의 광장> 사진 <복악설경>」, 『경향신문』, 1971.8.30.
 「빛의 예술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동아일보』, 1974.6.5.
 「사진집 『생의 찬미』 출간 의학박사 김영민 씨」, 『동아일보』, 1974.9.6.
 「김영민 <생의 찬미> 동경서 사진전시회」, 『동아일보』, 1975.5.22.
 「추천작가 지명 문제로 사단 중진들 반발」, 『동아일보』, 1976.4.21.
 「초점의 마… 영상의 제전 14회 동아사진컨테스트 지상전시」, 『동아일보』, 1976.6.11.
 「소외된 지방문화예술 중흥의 자극제 역할」, 『경향신문』, 1976.9.23.
 「한성여대 학생모집」, 『조선일보』, 1978.1.29.
 「영광은 선배에게 돌리고파 <환상>의 양성철 씨 입상소감」, 『동아일보』, 1979.2.23.
 「사진문화 사진작가협 제17회 회원전 개최」, 『매일경제』, 1980.2.18.
 「김재수 이정자 박윤배 씨 금상 불[란서] 《르 살롱》전 - 김한오 씨 등」, 『동아일보』, 1980.5.9.
 「1983학년도 계명실업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경향신문』, 1983.1.15.
 「1984학년도 대구대학교(후기) · 경북실업전문대학 학생모집」, 『경향신문』, 1984.1.1.
 「1985학년도 계명실업전문대학 신입생모집」, 『경향신문』, 1985.2.2.
 「계명실업전문대학 1986학년도 신입생모집」, 『경향신문』, 1986.2.10.
 「부산산업대학교가 경성대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경향신문』, 1988.6.14.

주간지/월간지/계간지

1930-1940년대

조상규. 「(사진) <출범> 조상규」, 『사진문화』, 1948년 7월. 5.
 안월산. 「(사진) <기와굴의 아침> 안월산」, 『사진문화』, 1949년 2월. 2.
 임윤창. 「(사진) <효명> 임윤창」, 『사진문화』, 1949년 2월. 3.
 「(사진) 전국산업사진전 특선작 - 대구 홍사영, 장병진, 서태석」, 『사진문화』, 1949년 4월. 13-15.

구왕삼. 「사진시평(대구)」, 『사진문화』, 1949년 5월. 16-17.
 「(사진) 제2회 전국종합사진 특선된 작품」, 『사진문화』, 1949년 8월. 20-29.
 임윤창. 「(사진) 국산품사진전입선작품 <토산품> 임윤창」, 『사진문화』, 1949년 11월. 8.

1950-1960년대

구왕삼. 「예술사진동인전평」, 『사진문화』, 1950년 1월. 22-23.
 정유. 「제3회 전국예술사진전을 보고」, 『사진문화』, 1950년 4월. 12-13.
 구왕삼. 「사단의 당면문제」, 『사진문화』, 1950년 6월. 6-8.
 『U.S. 카메라』, 1961-1963.
 「(사진)<수녀 수산나> 배상하」, 『자유의 벗 8호』, 1963년. 14.
 「(사진) <중개인> 신현국」, 『자유의 벗 8호』, 1963년. 15.
 「(사진) <수녀 수산나> 고 배상하 작」, 『포토그래피』, 1966년 8월. 11.
 「(사진) <비행> 서선화 작」, 『포토그래피』, 1966년 8월. 18.
 박영달. 「사진론 - 세계의 사진화」, 『사진예술』, 1966년 8월. 34-36.
 「(사진) <풍년제> 이정강 작」, 『포토그래피』, 1966년 8월. 45.
 「(사진계 소식) 제9회 대구사우회 작품」, 『포토그래피』, 1966년 9월. 60.
 구왕삼. 「해방사단 20년 측면사」, 『사진예술』, 1966년 9월, 36-38.
 박영달. 「사진의 회화성과 문학성 - 세계의 사진화」, 『사진예술』, 1966년 9월. 39-41.
 구왕삼. 「해방사단 20년 측면사(하)」, 『사진예술』, 1966년 10-11월, 40-42.
 「(사진) <인종(忍從)> 박달근 제8회 시드니국제사진전 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9.
 「김영민 사진전」,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46-47.
 「제2회 신사회발표전」,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48.
 「대륜고교사진전」, 『포토그래피』, 1966년 10-11월. 49.
 「(사진) <조국> 이정강 작(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35.
 「(사진) <반성> 서선화 작(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40.
 「(사진) <조화> 이정강 작(입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46.
 「(사진) <평화의 기구> 신현국 작(특선)」,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57.
 「(사진계 소식) 제5회 무지개회 칼라사진전」,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67.
 「(사진계 소식) 조상민 씨 경북예총 부이사장 대구사우회 대표 별세」, 『포토그래피』, 1966년 12월. 67.

「대구동인사진전」, 『포토그래피』, 1967년 1-2월. 17.

「(사진계 소식) 경북사협 제6회전」, 『포토그래피』, 1967년 1-2월. 72.

「(사진) 창협 제3회 회원전에서 〈역정〉, 박달근」, 『사진예술』, 1967년 5월.

「(사진계 소식) 46회 대륜전 사진부」, 『포토그래피』, 1967년 9-10월. 91.

「(사진계 소식) 제2회 전국고등학생사진전」, 『포토그래피』, 1967년 11-12월. 91.

이정강. 「누-드 씨리-즈」, 『포토그래피』, 1968년 1-2월. 18.

「좌담회) 무지개회와 칼라사진」, 『포토그래피』, 1968년 1-2월. 72.

「(사진계 소식) 한국사진협경북지부」, 『포토그래피』, 1968년 3월. 69.

「(사진계 소식) 제3회 신사회전 (대구)」, 『포토그래피』, 1968년 6월. 75.

「(사진계 소식) 어린이 사진전(대구매일신문사)」, 『포토그래피』, 1968년 7월. 71.

박영달. 「포토에세이-경이의 눈」, 『카메라예술』, 1968년 10월. 27.

신현국. 「영상의 기능」, 『카메라예술』, 1968년 10월. 44-45.

「광화회 창립전」, 『포토그래피』, 1968년 10-11월. 19.

「(사진계 소식) 대구 YMCA 광화회」, 『포토그래피』, 1968년 10-11월. 71.

「(사진계 소식) 대구 대륜전」, 『포토그래피』, 1968년 12월. 70.

박영달. 「포토에세이-춧불」, 『카메라예술』, 1968년 12월. 99.

「(사진계 소식) 제11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포토그래피』, 1969년 1월. 65.

「(사진계 소식) 제5회 경북 관광 사진콘테스트」, 『포토그래피』, 1969년 1월. 69.

박영달. 「포토에세이-자연미와 인공미」, 『카메라예술』, 1969년 3월. 43.

신현국. 「스트로보 후렛슈의 성능과 장단점」, 『카메라예술』, 1969년 3월. 75.

「(사진) 현역작가결작선 〈동면〉, 신현국」, 『카메라예술』, 1969년 4월. 20.

박영달. 「포토에세이-양지를 향하는 마음」, 『카메라예술』, 1969년 8월. 27.

구왕삼. 「꾸준한 노력의 열매 - 대구사우회 작품전을 보고」, 『사진 예술』, 1966년 9월. 111.

_____. 「포토에세이-순백」, 『카메라예술』, 1969년 12월. 35.

1970-1980년대

김태한. 「《24회 국전》 사진을 보고 - 다양한 소재 훌륭한 인화 처

리」, 『포토그래피』, 1975년 6월, 49.

「고 배생하의 작품 세계」, 『영상』, 1976년 봄/여름호.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추천작가 지명 시비」, 『신동아』, 1976년 6월. 371.

박영달. 「현대사진에 대한 소고」, 『영상』, 1977년 3월.

임응식. 「특집: 사진, 어디까지 왔다 - 한국 사단의 형성과 문제점」, 『미술과 생활』, 1977년 10월. 77-87.

김태한. 「사진의 양식과 그 방법」, 『영상』, 1978년 8월. 44-47.

_____. 「사진의 양식과 그 방법(2)」, 『영상』, 1978년 9월. 44-48.

서상덕. 「(사진전) 뿌리내린 《국전》」, 『월간사진』, 1979년 6월. 113-114.

「(사진) 우리는 친구」, 『월간조선』, 1982년 8월.

이정강.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가는 길」, 『월간사진』, 1982년 8월. 25.

「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 측면사(1) 이명동 선생께 듣는다.①」, 『월간사진』, 1985년 1월. 161-168.

김태한. 「전위사진의 사적고찰」, [매체, 일시 미상]. 44-48.

단행본

『제17-23회 국제사진살롱』, 일본 아사히신문사. 1957-1963.

『세계사진연감1961』, 일본 헤이본샤. 1961.

『한국화보』, 국제보도연맹. 1962. 1966.

조명원. 『'66 한국사진연감』, 한국사진문화사. 1966.

『한국예술지 권1』, 예술원. 1966.

박달근. 『사진교실』, 송원문화사. 1967.

『한국예술지 권2』, 예술원. 1970.

『한국예술지 권3』, 예술원. 1970.

김영민. 『생의 찬미』, 일심사. 1974.

김태한. 『사진학』, 형성출판사. 1975.

강상규. 『한국사진사』, 형설출판사. 1976.

김태한. 『사진미학』, 형성출판사. 1977.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사 - 사진』, 동화출판공사. 1978.

『안월산유작사진집』,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부. 1980.

박영달. 『난을 치는 두 마음』, 교음사. 1982.

강영호. 『강영호 사진집』, 목언출판사. 1989.

김태한. 『김태한 사진집』, 열화당. 1993.

대구예술30년사편찬위원회. 『대구예술3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직할시 지회. 1993.

광주-전남사진사 편찬위원회. 『광주전남사진사: 1943-1993』,

삼화문화사. 1994.

신현국. 『인생의 목격자, 신현국 사진집』, 사진예술사. 1994.

한국산악회. 『한국산악회 50년사』, 한국산악회 50년사 편찬위원회. 1996.

매일신문사. 『매일신문사 50년사』, 매일신문사. 1996.

『(1945-1997)대구근현대사진선집: 국내외 입상작품』,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1998.

임영균. 『사진가와와 대화: 한국사진을 개척한 원로사진가 8인과 의 대답』, 눈빛. 1998.

도봉준. 『도봉준 사진집』, 1999.

서선화. 『사진인생 60년 세월 - 석천 서선화사진집』, 사진예술사. 1999.

열린사진문화연구소. 『대구사진사 인물자료집』, 한국사진자료실 포토하우스, 2001.

경일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경일대학교 40년사: 1963-2003』, 경일대학교. 2003.

마야사진연구소. 『대구사진사Ⅱ 인물자료집』, 도서출판 가람. 2007.

_____. 『대구사진사Ⅲ 인물자료집』, 도서출판 가람. 2008.

대구사진문화연구소. 『대구사진사Ⅴ 인물자료집』, 도서출판 가람. 2009.

사진역사연구소. 『영선못의 봄, 최계복 사진집』, 문사철. 2009.

김원중. 『김원중 테마에세이, 사람을 찾습니다! 기인이 그리운 세상』, 소소리. 2009.

대구사진문화연구소. 『대구사진사Ⅴ 인물자료집』, 도서출판 가람. 2010.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사문화연구소 자료집 vol.2 한국 사진사 구술프로젝트: 1945-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동향』, 가현문화재단. 2010.

_____. 『사진+문화 vol.2』, 그래픽코리아. 2010.

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 『대구예총 50년사』, 학이사. 2012.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사진+문화 vol.6』, 그래픽코리아. 2013.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 50년사』, 도서출판 피알에이드. 2013.

강위원. 『대구사진80년: 영선못에서 비엔날레까지』, 도서출판 학이사. 2013.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6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부 속미회 50년을 지나고』, 가현문화재단. 2013.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7 전조선사

진연맹 《조선사진전람회》 관련 『경성일보』 자료집 1934-1943』, 가현문화재단. 2013.

_____.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8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가현문화재단. 2014.

_____.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9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 가현문화재단. 2014.

대구가톨릭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100년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1904~2014. 역사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4.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10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 가현문화재단. 2015.

경성대학교60년사편찬위원회. 『경성대학교 60년사』, 동아TG. 2015.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11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부 자료집』, 가현문화재단. 2016.

임응식. 『임응식 회고록, 내가 걸어온 한국 사단』, 눈빛. 2016.

김태욱. 『최계복 사진 작품 연구 및 활동의 역사적 의의』, 대구사진문화연구소. 2022.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60년사』 1-2권. 계명문화대학교. 2022.

전시도록

문교부. 『제13-15회 국전도록』, 태서문화사. 1964-1966.

문화공보부. 『제1-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 1971-1973.

문화공보부. 『제23-28회 국전도록』, 광명출판사. 1975-197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29-30회 『국전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1981-1982.

문화공보부. 『제17-18회 국전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2001.

대구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 『대구사진비엔날레 2008: 대구사진의 선각자 - 구왕삼, 박영달』, 대구사진비엔날레. 2008.

동강사진박물관. 『구왕삼 탄생 100주년 사진전 1909-1977』, 동강사진박물관. 2009.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사진문화연구소. 『대구미술다시보기 사실주의 vs 조형주의 1950·60년대 대구의 사진논쟁』, 대구문화예술회관. 2009.

대구사진문화연구소. 『1940-60년대 사실주의 vs 조형주의 대구 근대사진의 모색』, 프린트하우스. 2010.

『추당 박영달 회고전 - 사진예술과 휴머니즘』, 포항시립미술관.

2016. 대구사진비엔날레.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초대전시 - 대구사진사 시리즈 II』. 대구문화예술회관. 2021. 『한국사진사 인사이드 아웃, 1929-1982』. 뮤지엄한미 삼청 개관전 도록. 가현문화재단. 2022.

팸플릿/기타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제1회 전국 ‘어린이’ 사진전람회》. 부산 미국공보원. 1949.8.1.-5.
 《예술사진동인전》. 대원화랑. 1949.11.21.-26.
 《예술사진과 양화 합동전》. 부산 미국공보원. 1950.1.21.-26.
 사진동우회 주최. 《사진동인전》. 태도회다방. 1951.12.21.-27.
 대구사진예술연구회.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합동예술사진전》. 미화당화랑. 1952.6.5.-9.
 한국사진작가협회. 《제2회 사협전》. 국제구락부화랑. 1953.8.5.-9.
 동방사진문화사. 동방사진뉴-스사 주최. 《제1회 전국예술사진전람회》. 화신백화점 5층 화랑. 1954.8.5.-9.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울미국공보원 주최. 《한미합동 “한국가족” 사진전》. 미국공보원 화랑. 1956.12.17.-22.
 《한국사진작가단 창립전》. 동화백화점 4층 화랑. 1957.3.10.-16.
 《고승·명승 사진전》. 공보실공보관. 1957.8.1.-10.
 경북학생산악연맹 주최. 《임윤창 산악사진전》. 대구 미국공보원. 1958.3.29.-31.
 《작가단 자유작 사진전》. 공보실 공보관. 1958.5.5.-11.
 《제3회 대구사광회 사진전》. 대구 미국공보원. 1958.5.11.-13.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당선작품 걸작사진전》. 국립도서관. 1960.4.9.-15.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대구 USIS. 1960.12.1.-4.
 《회화와 사진전》. 미국공보원. 1961.3.14.-17.
 《제2회 박영달사진전》. 대구 미국공보원. 1961.5.13.-15.
 《혁명 백일 축전·광복절 경축, 미술전》. 경북공미술관. 1961.8.21.-9.5.
 신사실·영광크립 주최. 《제2회 이미전(二美展)-회화와 사진》. 미국공보원. 1962.1.13.-16.
 프랑스 《보르도국제사진살롱》. 1962-1965.
 프랑스 《제7회 낭트국제사진살롱》. 1962.2.3.-18.
 《김원영 칼라-사진전》. 중앙공보관. 1962.4.21.-25.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2회 국제진출작가사진살롱》. 중앙공보관. 1962.12.24.-30.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 대구사우회 주관.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 경북공보관 화랑. 1963.5.2.-11./ 서울중앙공보관. 5.20.-26./ 부산공보관. 6.10.-19.
 한국창작사진협회. 『선언 및 정관』. 1964.8.30.
 한국창작사진협회. 《제1회 창협전》. 중앙공보관. 1965.1.11.-17.
 경북사진협회 주최. 《제1회 전국 대학생 사진 콘테스트전》. 대구 미국공보원. 서울 중앙공보관. 광주 미국공보원. 1965.3.6.-12.
 공보부 주최. 《제4회 신인예술상》. 예총화랑. 1965.5.15.-21.
 공보부 주최. 《제5회 신인예술상》. 예총화랑. 1966.5.28.-6.5.
 대구사광회 주최. 《고 배상하 유작 사진전》. 부산미국공보원 화랑. 1966.6.10.-16.
 사진동우회 주최. 《고 배상하 유작 사진전》. 신문회관 화랑. 1966.6.20.-2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66 8-15경축 종합전시회, 미술-건축-사진》. 예총화랑. 1966.8.15.-19.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2회 전국 대학생 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전》. 예총화랑. 1966.12.13.-17.
 《제7회 대구사광회 사진전》. 경북공보관. 1967.2.25.-3.2.
 《구왕삼시사전》. 김해 돌다방. 1967.3.8.-13
 《구왕삼시사전》. 진주. 1967.5.17.-?.
 《제10회 대구사우회 사진전》. 경북공보관 화랑. 1967.6.10.15.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67 8.15경축 종합전시회(미술, 사진)》. 예총화랑. 1967.8.15.-21.
 뉴포토클럽 주최. 《창립 10주년 기념 뉴-포토클럽 사진전》. 중앙공보관 제1실. 1967.9.6.-11.
 대륜중·고학생회 주최. 《개교 46주년 기념 대륜전》. 경북공보관 화랑. 1967.9.14.-19.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 중앙공보관. 1968.1.22.-2.10.
 대구사우회. 예총경북지부 주최. 《조상민, 도주룡 유작전》. 경북공보관 화랑. 1968.6.26.-7.1.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COLOR 작품전》. 국립공보관. 1968.9.7.-15.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사진 공모전》. 예총화랑. 1968.9.25.-30.
 《제2회 대구 YMCA 광화회 사진전》. 공화화랑. 1969.10.26.-31.
 한국상업사진가협회. 《제1회 한국상업사진가협회 회원전》. 서울 신문회관. 1972.3.25.-31.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서울 초대 사진작가 작품전》. 태양다방. 1972.11.9.-13.

삼오양행.한국일보 주최.《제3회 3.5 촬영대회 입선사진 작품전》. 국립공보관 제2전시실. 1972.11.16.-20.
 《제2회 김영민사진전》. 경북공보관. 1972.11.20.-25.
 부산일요사진회 주최. 한국사진협회 부산지부 후원. 《제1회 사진예술강좌 초청장》. 신신예식장. 1973.9.27.28.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제16회 회원작품전 -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태양다방. 1973.11.8.-12.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9회 전국학생사진공모작품전》. 국립공보관. 1974.1.21.-27.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1회 사협회원전 / 제1회 공모전》. 국립공보관. 1974.2.22.-28.
 한국상업사진작가협회. 《제3회 한국상업사진가협회 회원전》. 신문회관화랑. 1974.6.8.-14.
 《제3회 김영민사진전》. 신문회관 화랑. 1974.9.2.-8.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회 전국아마추어사진 촬영대회》. 국립공보관. 1974.11.1.-6.
 한국사진협회 주최. 《'74 새마을-산업건설상 사진작품전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안국동). 1974.11.4.-1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라벌예술 초급대학. 《21회 종합예술축전 미술전람회》. 지하철광장(시청앞). 1974.11.23.-30.
 한국사진협회. 《제2회 전국일반 사진작품 공모전 / 제10회 전국 학생 사진작품 공모전》. 현대미술관(덕수궁 내). 1974.12.18.-26.
 동아일보사. 동아방송 주최. 《제13회 동아사진컨테스트 입상-입선작 전시회》. 신문회관 화랑. 1975.6.9.-15.
 국립현대미술관. 《임응식 회고전》. 국립현대미술관. 1982.6.21.-7.4.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1940-1980》. 국립현대미술관. 1983.5.16.-25.

논문

장진필. 「사진예술과 회화의 연관에서 본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73.
 강상규. 「한국사진의 발전에 대한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76.
 김일창. 「사진 전래와 대구사단의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84.
 강상규. 「대구사진의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제1집(1998): 3-15.

김원경. 「해방 후 대구 경북사단의 사적 고찰: 1950년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0.
 이용환. 「대구사진의 리얼리즘과 조형주의 사진 논쟁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제11집(2008): 133-150.
 김태욱. 「1930-50년대 대구경북 사진의 특성」.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제17집(2012): 76-85.
 _____. 「대구 근대사진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논집』 제49집(2012): 281-320.
 이용환. 「대구 현대사진의 태동과 사진교육시스템에 대한 연구: 1970년대에서 199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9.

웹사이트

경북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knu.ac.kr/bbs/board.php?bo_table=archive